

2026학년도 제1회 사범대학 사림세미나

5·18 민주화 운동과 사범대학: 기억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오월의 정신
함께 계승하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민주주의
만세!

일시: 2026. 5. 18.(월) 15:00~17:00

장소: 전남대학교 스토리움 회의실

주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목차



인사말 3

발제1 류영룡 박사 |
1980년 5월 이후 사범대학생의
5·18 관련 투쟁의 역사와 의미 5

발제2 안종철 박사 |
5·18 진상규명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33

종합토론 49

토론1 안희수 | 오월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50

토론2 서종호 | 기억하는 자가 걷는 길 52

토론3 안은성 | 5·18민주화운동과 나의 교육관:
기억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54

토론4 김민욱 | 오월 정신이 묻고
오늘의 사범대학 학생이 답한다 58



인사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 거대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1980년 5월의 광주는 ‘크고 작은’ 수많은 역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전남대 사범대가 기억하는 1980년 5월의 시간 또한 518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정치인은 “잘못된 과거는 기억을 통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라고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재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한 작가는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0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1980년 5월, 사범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반추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방향 또한 달라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의찮은 상황에서도 사범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비롯해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민병로 소장님을 비롯한 518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부 주제 기획을 비롯해 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준비해 주신 교육학과 이지혜 학과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발제로 참여하신 류영룡 박사님, 안종철 박사님과 토론으로 함께하는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사범대가 지나온 1980년 5월이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사범대가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사범대학장 강구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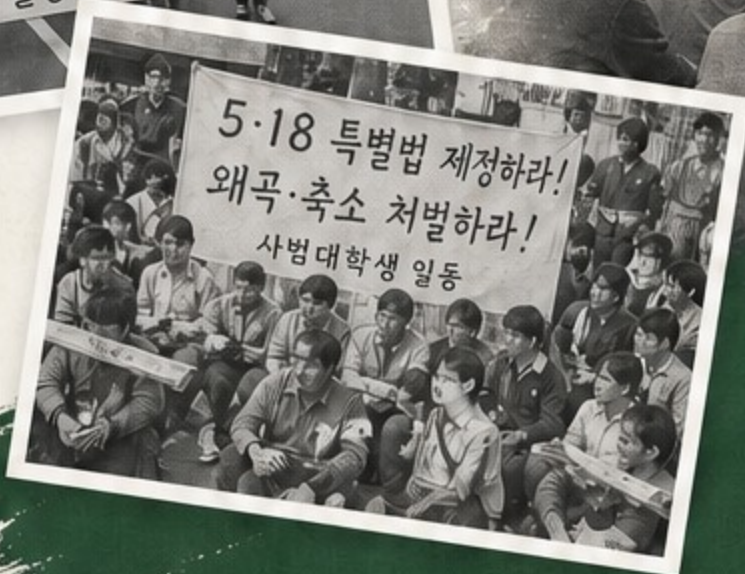
발제 1

1980년 5월 이후 사범대학생의 5·18 관련 투쟁의 역사와 의미

발표자: 류영룡 박사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오월의 진실!
역사의 기억!
미래의 약속!



기억하는 우리가,
역사를 바꿉니다



1980년 5월 이후 사범대 학생의 5·18 관련 투쟁의 역사와 의미

류영룡(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의 피살을 계기로 한국의 민주화의 열망이 표출되었다. 유신독재 정권을 유지하던 군부는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등장한 전두환 일당의 신군부도 서울의 봄을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1980년 대학가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신군부에 대한 저항과 민주 쟁취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민주화 투쟁에 전면으로 나섰다. 전남대학교의 투쟁은 5·18항쟁을 촉발하였다. 사범대학 교수들은 1980년 5월 14일에 도청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대성회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였다. 1980년 5월 15일에 학생들은 학교에서부터 금남로를 거쳐 도청 분수대까지 교수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1980년 5월 27일에 벌어진 전남도청 최후 항쟁에서 당시 상업교육과 재학 중이던 이정연이 사망하였다. 1980년 5월 이후, 사범대학 학생들은 5·18 진상규명과 5월 학살 원흉 처단, 반외세 자주화 및 민주 쟁취 투쟁에 앞장섰다. 이 글에서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전개되었던 사범대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투쟁의 역사를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역사와 교육적 맥락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들어가며: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교육의 대상인 인간의 존엄은 교육 실천에 있어 최고의 가치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들과 교수들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체험했으며 수많은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서로를 아끼며 민주주의 꽃을 피운 결정적 사건인 5·18광주민중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5·18을 전후로 많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은 5·18 진상규명과 독재정권 타도 및 시국사건과 관련한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5·17'조치 즉, 비상계엄이 확대되었다. 비상계엄이 확대되기 직전, 보안사는 예비검속을 통해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 26명을 합동수사본부로 불법 연행하면서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체포했다. 전남대는 박관현 외 12명이 대상자였다. 17일 밤 전남대에 진주한 공수부대원에게 전남대 총학생회 부회장 이승룡과 사회부장 오승룡이 붙잡혔고, 학교에 있던 학생 69명이 연행되었다. 당시 총학생회 간부 중 사범대 학생회장인 교육학과의 위경종과 섭외부 차장 겸 여성 총책(여학생 대표)인 정경자도 그 대상이었다. 총학생회장 박관현과 16일에 한 약속에

따라 5월 18일 학생들은 전남대 정문에 모여 노래를 부르며 “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나라”, “휴교령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아침, 정문에서 벌어진 학생들과 계엄군의 충돌이 5·18항쟁을 촉발하였다. 5·18항쟁 과정에서 당시 상업교육과에 재학 중이었던 이정연 열사가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최후 항쟁 시에 사망하였다. 이후, 사범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이 글에서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투쟁을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과정을 거쳐 예비 교육가인 사범대학 학생들의 사회적 실천을 정리하고 토론을 거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로 한다.

1982년부터 1984년에는 학원자치화 및 자율화 운동이 <총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84년 초 당시 제5공화국 군부정권은 각 계의 끈질긴 항쟁에 직면하면서 ‘사회유화정책’의 하나로 학원자율화를 시행하며 제적 학생들의 복학을 시행했다. 그들은 학생들의 학원자치화 및 자율화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과장되게 이용하여 학원가의 고삐를 다시 죄려는 의도를 보였다. 교육학과 81학번 이광형은 ‘그 누구도 아닌 학생 자신들의 힘으로 학생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범대에서 교육학과가 먼저 선봉에 서야 한다는 의식을 이두휴, 배인철, 노희정, 권경숙 등 몇몇 동급생들과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학과 내에 교육학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전남대학교에서는 오랜 투쟁의 결실로 총학생회·단과대학 학생회·대의원회·용봉편 집실·단과대학 편집실·예비역학생회 등 자치 조직이 속속 건설되었다. 1985년까지 동아리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생운동은 1986년을 기점으로 단과대학 동아리·학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일부 활동가들만의 운동에서 광범한 대중운동으로 탈바꿈하였다. 5·18항쟁 이후 1980년대는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 반외세 자주평화통일, 광주학살주범과 미제타도투쟁이 이어졌다. 이 시기에 사범대학에서는 학내 자치와 교육민주화 투쟁도 이어졌다. 1985년에 전남대학교 15대 총학생회장으로 국어교육과 78학번 오병윤이 취임하였다. 이후, 총학생회가 단절되었지만 학생들의 학원자치 및 자율화 투쟁으로 부활하였다. 1986년 황일봉, 1987년 김승남, 1988년 최완욱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가 학생운동의 주축으로 자리매김을 시작했다.

1985년 이전까지는 1학생회관, 2학생회관 중심 동아리 중심, 사범대학 교육연구회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이루어졌다. 사범대 교육연구회는 역사가 깊은 독자적인 동아리로 이어졌다. 이 동아리에서 활약한 학생들은 73학번의 장석웅, 76학번의 박병섭, 신민정, 77학번의 김정희, 문광일, 윤철수, 김동수, 노고말레, 안현순, 정일선, 78학번의 고혜숙, 김무웅, 최영희, 정경아, 강종구, 79학번의 박주희, 안교식, 정권울, 박성기, 안여숙, 80학번의 강울, 주경중, 맹양배, 정한재, 조영식, 조경숙, 81학번의 김재영, 김형곤, 노희정, 공창배, 박민아, 유재복, 한희숙, 82학번의 김용태, 강성중, 정용문, 최영민, 김영복, 전순영, 박연희, 조경희, 83학번 서관석, 김항제, 조진연, 84학번의 임인섭, 김영일, 방남열, 이종진, 그리고 85학번 정성일(마지막 회

원)이 있었다. 이외에도 사범대학 동아리로 삼민, 산돌, 프론티어, 사루리 등이 있었다. 이후, 프론티어, 사루리를 제외한 동아리들은 해체되었으나, 그 정신은 사범대학 19개 학과(1983-1990년)별 학생회와 학회로 이어졌다. 이로써, 사범대학은 대중조직화와 투쟁역량 강화를 통해 전남대 학생운동의 버팀목이자,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주의의 산실로 자리매김하였다. 1986년 4월이 되면서 민주교수들의 연쇄적인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교수들은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적 평등의 실현, 의사표현의 자유와 교권의 확립, 조속한 개헌의 촉구를 주장했다. 1987년 5월 4일에는 사범대학 교수 22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1980년 이후 5·18 관련 투쟁과 활동을 했지만, 개인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연락했으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기록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 5월 정신을 계승하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5·18이 투영된 삶을 살았던 교사, 교육가, 학교의 최고경영자, 교육감 등이 있다. 하지만, 교육계 및 다른 곳에서 이미 소명되었거나 공적인 소식 체계가 없어 아쉽게도 연락이 닿지 못한 분들의 투쟁사를 기록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공적 기록물의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사범대학 학생들의 투쟁사를 정리한 총체적인 기록은 없었다. 다행히, 교육학과에서 5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한 책에서 내가 정리한 역사가 있어 그것을 기본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교육학과 염민호 교수는 이 글을 읽고 내용 작성의 정확성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다. 윤리교육과 85학번 정성일은 자신이 소장한 기록물을 정리하여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미나 개최 안내 및 협조 요청 문건을 작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범대학 학생들의 투쟁 역사의 의미를 담아내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 1980년 5월 이후에 5·18 관련 투쟁의 결과로 많은 아픔을 기억에서 꺼내고 증언해준 사범대 동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도 이 글을 정리하는 데 있어 기록물의 부존재와 연구자의 한계로 5·18 관련 투쟁과 활동을 했던 사범대 동문의 기록물을 모두 찾지 못하였고, 직접 인터뷰를 수행하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 이 글에서 한정된 시기에 5·18 관련 투쟁과 활동을 한 모든 분의 생생한 증언과 살아있는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 글의 초고 작성 이후, 공적 기록물에 수록된 동문을 제외하고, 가능한 모든 분에게 원고를 SNS로 전송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 5·18 관련 사범대학 학생들의 투쟁 역사: 5·18이 투영된 삶

전남대학교에서는 70년대부터 유신체제에 먼저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민중지향 운동권이 형성되었다. 김남주, 이강 등이 주도한 ‘함성지’ 사건(1972.12), ‘광주지역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 사건(1974.4),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1978. 6. 27)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과 운동권 학생들은 남구 봉선2동의 봉심정(鳳心亭)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역량을 키웠다. 사범대학의 구성원들은 70년대 후반의 유신체제 모순의 심화와 민주화 열망으로 촉발된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1987년 6·29 직선제 개헌 투쟁, 1988년의 반외세 자

주화 투쟁, 노동운동으로의 이전 투쟁을 각자의 위치와 역량에 따라 수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실천과 투쟁 과정에서 학과 구성원들은 각성과 적극적인 참여로 자임을 마다하지 않아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 시기에는 각 단과 대학별로 <○○연구회>라는 명칭의 독서 동아리들이 만들어졌다. 독서 잔디, 루사, 한국농촌문화연구회와 함께 사범대의 교육연구회가 구성되었다. 이들은 탈냉전주의와 반분단 통일 추구를 이념으로 학생운동 활동을 전개했으며, 교육연구회에 소속되었던 예비교사들은 개별 교육문제로부터 시작해 교육현장에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은 추후 전개되었던 현직교사의 교육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사범대의 교육연구회는 학과별로 약간의 명칭은 달랐으나 그 활동 목적은 교육문제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1984년 이후, 사범대에서는 각 학과의 학회 또는 교육연구회를 학생운동의 대중조직화 세력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를 위한 사범대 내 비공개 조직인 언더 팀이 김혜주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인문, 어문, 자연의 세 팀이 운영되었다. 팀별로 학습과 교양이 이루어졌으며, 시국사건과 관련한 시위와 투쟁에 참여하였다. 이들 팀의 출신들이 1986년부터 각 학과의 학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그들은 각 학과의 구성원들을 학생운동 세력으로 가담하게 하거나 우호적인 세력으로 변화시켰다.

1) 1980년 5·18 항쟁

1980년 5월 이전의 투쟁 과정은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 차원을 넘은 사회민주화의 초석이였다. 안종철은 1974년 전남대학교에 입학하고 2학년 때 군에 입대하여 1978년 제대 후 교육학과에 재학하고 있던 중 1979년 10월 16일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민중항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 날인 10월 17일 아침 등교한 후 사범대 강의실 칠판에 큰 글씨로 “전남대인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적어놓은 것이 발각되어 광주서부경찰서에 연행되었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려는 형사의 취조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리고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11일 만에 경찰에게서 풀려나 귀가할 수 있었다. 1977년 국사교육과에 입학하였던 박기순은 들불야학을 창설하여 민중계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였다. 박기순과 함께 들불야학 1학기 강학 중의 한 사람이었던 국사교육과 신영일은 1979년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의 시위를 주도하였다. 또한, 그는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981년 전남대 9.29 시위로 투옥되었고,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등과 함께 교도소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0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하였다.

사범대학 교수들은 1980년 5월 14일 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성회에서 시국선언을 하였다. 이때 선언문을 낭독했던 당시 교수협의회 의장인 국어교육과 정익섭 교수와 오병문 교수가 선고유예처분을 받고 면직되었다. 그 당시 교육학과 노희관 교수는 구금후 면직되었고, 영어교육과 이옥남 교수는 구금 후 훈방되기도 하였다. 노희관 교수와 오병문 교수는 5·18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시위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노희관 교수는 1980년 5월 21일 학생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시위에 가담했다. 오병문 교수는 5월 8일 전남대 총학생회 주도로 시작되어 5·18 직전 민주화의 물결을 달아오르게 했던 민족민주화대성회(‘민주대성회’)에 참여하여 12일부터 학생들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촛불시위의 선두에 섰다. 이것은 학생보호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교육지표 사건 이후에 다시 시작된 교육민주화를 재촉하는 투쟁의 시작이었다.

1980년 신학기 개강과 함께 대학생들은 군부세력 타도를 목표로 민주화 투쟁을 하였고, 사범대학의 구성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980년 5월 항쟁 과정에서 당시 상업교육과 재학 중이었던 이정연이 동년 5월 27일에 사망하였다. 1980년 3월에 복교했던 국사교육과 문승훈이 집행유예를 받고 제적되었다. 국어교육과 박용성은 선고유예와 함께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학과 학생이었던 정경자는 훈방조치가 내려졌으나 제적되었다. 교육학과 학생이었던 위경종과 조기태는 집행유예와 함께 제적되었다.

위경종(78학번, 교육학과)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범대학 학생회장이었다. ‘5·17조치’라는 신군부의 기습공격으로 예비 검속이 일어나고 공수부대가 전남대를 장악했을 때 전남대 총학생회나 복적생 등 12명이 연행되었고 나머지는 피신했다. 이때 그 역시 피신했다. 5월 17일에는 담양으로 피신했고 18일 이후 광주, 담양으로 피신했다가 24일에 담양에서 검거되었다. 그의 도피처는 친구 집(광주), 광주 계림동, 광주 풍향동, 담양 고서 등이다. 도피 기간은 1980년 5월 18일부터 동년 5월 24일까지 일주일이다. 그 당시에는 5·18항쟁을 북한의 사주나 김대중과 연계된 ‘내란죄’로 조작하려 했다. 이 때문에 입건되어 수감된 학생들은 가혹한 고문과 구타에 시달렸으며, 수사기관의 바뀌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시 고문과 진술을 번복해야 했다. 그는 1980년 5월 24일 입건되었으며 구금 경로는 교도소 창고, 상무대, 교도소이다. 그 당시 수감자들은 교도소의 열악한 처우, 구타와 징벌방 수감, 면회와 집필의 불허 등을 이유로 교도소 처우개선 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가혹한 구타를 당했다. 이후 위경종은 1980년 12월 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리고 1984년 3월에 복적되었다. 이후 그는 교사로 지내다가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했다.

정경자(78학번, 교육학과)는 1980년 총학생회 섭외부 차장 겸 여성총책(여학생 대표 역할)으로 5월 16일에 있었던 촛불시위 비품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5·18항쟁 과정에서 많은 일을 수행했다. 촛불시위를 준비하기 위해 양동시장에서 다량의 솜을 구입하고, 흥사단 구성원 가운데 공대생들을 모아 솜과 나무 및 철사로 횃불 토치를 만들었다. 5·18항쟁 이전에 전남대 총학생회는 학원민주화 운동을 정리하고 이를 교외투쟁 및 정치민주화 투쟁으로 전환하고자 1980년 5월 3일 어용교수 퇴진 및 반민족·반민주세력 영결식을 열었고 묘비를 세웠다. [사진 1]에서 맨 앞줄 우측이 정경자이다. 또한 그는 [사진 2]과 같이 반민족·반민주 장례식 때 세

워진 비석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때 정경자는 도서관 앞에서 총학생회장 박관현의 기념사 이후에 송선태와 연대시를 낭송했다. 그 당시 대강당에서 ‘보장하라 노동3권’, ‘창백한 언론은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뒤로 하고 ‘출정시’도 낭독했다. 5월 6일에는 비상학생총회가 있었고, 교내에서 전개되었던 민족민주화성회(8-14일)를 거쳐 민족민주화대성회(14-16일)가 시내 일원에서 3일간 열렸다. 이후 신군부의 ‘5·17조치’로 그 역시 피신했다. 16일 소재지는 광주이고 이후 상황을 보다가 20일 수원으로 피신했다. 그는 처음부터 도피생활을 지원해 준 강력한 지원자의 인맥으로 1980년부터 1981년 2월 말까지의 9개월 간 도피 생활을 했다. 1981년 2월 말 고모 집에서 검거되어 서부서로 연행되고 조사 후 2월 말에 훈방되었다. 동기들은 80년에 교사로 발령을 받았지만, 그는 1989년에 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었다. 이후, 정경자는 시국사건 관련자 임용 투쟁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게 했고, 2002년 마침내 교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5·18항쟁에 관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에 들어갔다. 그는 여기서 사무총장과 이사를 맡아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기억해야 할 그들을 위해 뛰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진력하였다.



[사진 1] 1980년 5월 15일 시내 가두시위



[사진 2] 반민족·반민주 장례식 때 세워진 비석(정경자)

조기태(78학번, 교육학과)는 5·18 관련 제적 및 복학을 했다. 그리고 두 차례의 복역을 겪었다. 재심 청구 결과 하나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하루 뒤 선포된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투쟁조직에 가담했다. 1980년 학내 동아리에서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학생과 시민에게 배포했다. 조기태는 타 대학 학생들과 함께 유인물인 <대학의 소리>를 작성하여 광주시민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대학의 소리>에서 김대중의 ‘최후진술’을 등사용 잉크를 문힌 롤러로 미는 방식으로 동 제명의 문서를 제작하여 검열을 받지 않고 출판하고 배포했다. 이 당시에 그는 80년초 전남대총학생회 비밀기획 멤버인 이재의가 작성한 유인물을 이돈규의 집에서 양동춘, 오병학

과 함께 등사기로 대량제작하여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그는 5·18광주민중항쟁 백서 발간을 준비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위반으로 80년 10월 12일부터 81년 1월 15일까지 갇혀 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이후 국사 교육과 유증열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며 같이 활동했고, 이로 인해 범인 은닉과 집시법 위반으로 81년 7월 21일부터 그해 10월 21일까지 다시 투옥되었다. 그는 전두환의 폭압과 압제와 맞서 싸우며 교도소와 서부경찰서를 들락날락했다. 그의 재심 판결문을 보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에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했던 것을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태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다. 1980년 5월 항쟁 과정에서 투옥되거나 구금된 학생들과 교수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갖은 고초를 당하였다. 폭력적, 반인권적 작태를 당하신 분들의 인권을 생각하여 여기서는 생략한다.

2) 1980년 5월 진상규명 투쟁의 시작

안종철(74학번, 교육학과)은 1988년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설립한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의 책임연구위원으로 임명되어 500여명의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역사적 증언을 채록, 정리했고 이것을 『5·18광주민중항쟁사료전집』(1990, 풀빛출판사)으로 발간하여 광주항쟁의 진상이 시민의 손으로 기록되고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이후 광주항쟁을 연구하는 기념비적인 증언록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가장 잘 정리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광주광역시청의 5·18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보상관련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했으며, 5·18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국내외 학자들이 5·18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5·18민주화운동자료총서』는 63권까지 발간되었는데 각 권은 800여 쪽으로 구성되었으며 권마다 2,000부씩 발간하여 전국대학 도서관, 세계유명대학 도서관, 한국학연구소, 연구자 등에게 배포되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과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는 매개체가 되었다.

안종철은 2000년 9월부터 국무총리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채용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심사자료 작성, 희생자들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전념했다. 여기에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과 보상 경험, 기념사업에서 터득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활용되었다. 2002년 5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으로 채용되어 인권침해,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조사했고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주요 공기업과 사기업 채용에 있어 차별관행을 조사한 것은 한국사회에 전에 없는 인권향상 작업이었다. 이와 더불어 정책국장, 행정기획본부장, 기획조정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한

국사회의 인권향상에 기여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권위원회에서 면직되었던 안종철은 광주에 내려와 있는 동안 5·18민주화운동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일에 전념했다. 추진단장으로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유네스코의 심사에 참석하여 심사를 받은 결과, 2011년 5월 2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청에서는 5·18기록물을 보관하고 연구할 수 있는 5·18아카이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국비와 시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금남로 가톨릭센터를 리모델링했다. 그 결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설립되었고 이러한 업적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된다. 5·18민주화운동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법제화되고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등은 회고록을 통해 1980년 당시의 진실을 왜곡해왔다.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해 일부 세력들은 거리에서, SNS상에서 끊임없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아 왔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월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19년 12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안종철은 국회의장 추천으로 차관급인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조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진실들은 위원회의 국가보고서에 기록되어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그동안 그가 저술했던 연구물들은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광주 5월 민중항쟁사료 전집』, 『광주전남 지방현대사 연구』, 『주한미군정연구』 외 다수가 있다.

국사교육과 77학번 신영일(1958~1988)은 1978년 6월 29일 전남대 교수들의 <민주교육지표선언>에 따른 학생시위에 참여하여 무기정학 처분을 당했다. 그는 들불야학에 국사강학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978년 11월에 박관현, 김정희 등과 함께 광주공단 노동자 실태조사 활동에 참여였고, 1979년 10월에 전남대 상담지도관실 방화사건 관련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당했다. 그는 1981년 9월 29일에 임낙평, 이광호 등과 함께 전남대에서 '반제.반파쇼 민족해방 학우 투쟁선언문'을 발표하고, 교내 시위를 주도하여 투옥되었다. 그는 1982년 10월에 광주교도서 수감 중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개선 주장하며 박관현 열사와 함께 40일간 단식투쟁을 하였고, 박관현열사가 숨짐에 따라 그에 따른 충격으로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나 병보석으로 출소하였다. 1984년 11월 18일에 정상용, 정용화, 송재형 등과 함께 전남지역 민주화운동의 구심체 「전남민주청년협의회」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홍보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86년 3월 30일에 광주의 신민당 직선제 개헌추진 현판식 때 시위를 주도하여 수배되었다. 1986년 5월 3일에 5.3 인천항쟁에 참여하였다. 그는 1987년 6월에 수배 해제되었다. 이후, 그는 「전남 민주주의 청년연합」(“전청련”)활동에 헌신하다가 1988년 5월 9일에 과로로 운명하여 국립 5.18민주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 이름 신영일은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의 불꽃을 피운 인물이다.



[사진 3]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의 불꽃을 지핀 신영일의 묘역(묘역번호 5-36)

오병운(78학번, 국어교육과)은 국어교육과 재학 중에 1985년에 전남대학교 제15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전남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운동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 및 반독재투쟁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광주지역에서 노동운동과 시민 사회 운동에 전념했다. 이후, 단절되었던 총학생회가 학원자치 및 자율화 투쟁으로 부활한 이후에는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매년 5월에 진행하였다. 이때 사범대학 학생들은 학원자치 투쟁과 민주적 선거로 탄생한 총학생회 및 사범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된 5월 기념식과 진상규명 투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사범대학은 85년 서관석 학생회장에 이은 86년 임종필 학생회장과 이행숙 여학생회장, 87년 최명주 학생회장과 최인화 여학생회장은 5월 투쟁 기간은 물론 시국사건 관련 투쟁에 공개 대중조직의 선봉자로서 사범대학 학생들을 이끌며 투쟁 전선에서 앞장을 섰다. 이에, 사범대학 각 학과 학생회와 학생들은 그들과 함께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 투쟁에 두려움 없이 나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5·18 관련 투쟁과 민주교육 쟁취 투쟁으로 이어졌다.

한경(82학번, 영어교육과)은 입학 후 써클 독서잔디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985년 5월 이후 가을에 <5월진상규명투쟁위원회>의 투쟁위원장이었다. 그는 5월 진상규명 투쟁에 온몸을 바쳐 헌신하였고, 후에 스님이 되었다. 국사교육과 오창민

과 유은숙도 한경과 함께 5월 진상규명 투쟁의 선봉에 섰다.

이행숙(83학번, 국사교육과)은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신군부의 광주 만행을 목격하고 여기에 가담한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전남대 사범대학에 국사교육과에 진학하여 '오월학살 원흉 미제 및 예속정권 타도 투쟁위원회(오월투위)'위원장을 맡아 선봉에서 5월 투쟁을 주도하다 투옥되었다. 그는 이것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성행불량자'라는 딱지가 붙어 1999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10년 동안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였다. 그는 1983년 3월 5일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입학하였고, 1985년 11월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여학생회장에 선출되었다. 1986년 5월 22일에 전남대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6주기 추도 시위(1986.05.08.-05.22.)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 폭행당하고 구금되었다. 그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986년 11월 8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86년 11월 14일에 전남대학교에서 제적당했고, 1987년 3월 3일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다. 1987년 9월 일에 6.29선언으로 사면 복권되어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4학년 2학기에 복학하였고, 1988년 2월 26일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를 졸업하였다. 1999년 11월 1일에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특별법에 의하여 9호봉으로 무안 청계중 발령받았다.

이행숙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983.05.-1985. 10. 기간에 전남대 각종 5·18진상규명 시위 참가하였고, 1985.11.-1986.05.07. 기간에 전남대 사범대학 여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여 1986.05.07. 기간에 5.18 당시의 참상을 알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5월 피의 투쟁선언'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는 1986년 5월 8일에 전남대학교 반제 자주화 반파쇼 민중민주화 투쟁본부(반반투) 산하 오월학살원흉 미제 및 예속정권 타도 투쟁위원회(오월투) 위원장을 맡아 '5월, 피의 투쟁선언'을 낭독한 후 학내시위를 주도하는 등 본격적으로 5.18진상규명투쟁의 선봉에 섰다. 1986년 5월 11일에 '5월 투쟁 깃발 아래 떨쳐 일어서자' 유인물 작성하였다. 1986년 5월 12일에 전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 500여 명과 함께 오월학살원흉 미제 및 예속정권 타도를 위한 제1차 실천대회를 갖고 '5월 투쟁 깃발아래 떨쳐 일어서자'라는 유인물을 뿌리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1986년 5월 14일에 전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 3,000여 명과 함께 반제 반파쇼투쟁 호남지역 대학생 연합 결성식 사회를 보았다. 이후, 학생들과 함께 정문에서 시내로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를 주도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5월혁명 계승하자, 예속정권 타도하자'는 구호와 함께 화염병을 던지며 6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하였다.

이행숙은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하여 1986년 5월 15일에 전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 500여 명과 함께 오월혁명 계승제 및 광주학살원흉처단대회를 갖고 '5

월혁명 후에들이여 총진군하자'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선두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동년 5월 18일에는 광주제일극장 앞에서 학생 50여 명과 함께 '5·18을 보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주관하였다. 동월 20일에는 민주기사의 날을 맞이하여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학생 100여 명과 함께 '예속정권 타도하자'는 구호와 함께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가두시위를 하였고, 이어진 21일에는 '치켜들자 광주학살의 배후조종자 미제에 대한 단죄의 칼을'이라는 유인물 작성하였다. 동월 22일에는 전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 500여 명과 함께 반미의 날 선포 및 5·18원흉처단 4차 실천대회를 가진 후 교내시위를 주도하고, 이날 19시경 광주충장로 금잔디다방 옥상에서 프랑카드 1개, 메가폰 1개, 태극기 1개와 횃불을 들고 '광주학살 교사범 미국을 몰아내자', '군통수권 쟁취하여 민족 자주정권 수립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다 검거되었다. 이후, 이행숙은 285일간의 연행·구금·수형을 거쳐 1987년 3월 3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1988년 7월 특별 사면 복권되었다.

이행숙은 2005년 2월 23일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인정(보상심의위 제 1833호)이 되었고, 2007년 8월 8일에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보상심의위 제6816)를 받았다. 1980년 5월 27일을 도과한 1984년에서 1986년 사건들과 관련한 사람들도 5·18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되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행숙은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이행숙은 재심을 청구하여 진실규명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1986년 5월 8일에서 27일까지에 발생한 일련의 투쟁은 5월 진상규명 및 학살원흉처단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의 결과로 개인적으로 학사 제적, 구속, 장기간 수형을 강제당했지만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상당한 기여했다고 자부하기에 재심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정운영(83학번, 교육학과; 정금자에서 개명)은 1학년 때인 1983년 비공개 이념 씨클인 한국사회연구회(전 독서잔디)에 가입하면서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그는 80여 차례의 학내외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84년 4월 19일 정운영은 <학원자유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4·19기념식 및 추모 행진에 참여했고, 5월경에 <전남대학교 민주회복추진위원회>(이하 '민회추')에 가담하여 '전남대학교 민주회복추진위원회 성명서' 유인물 2백여 장을 인문사회과학대 강의실과 사범대 강의실에 배포했다. 이후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남대 사범대학 교양학부 건물 4층에서 진행된 '민회추' 5·18진상규명특별소위원회 주도 단식농성에 씨클 선배들과 함께 참여, 5·18진상규명과 군사독재 반대 등을 주장했다. 5월 22일에는 단식농성을 해제하고 5·18원흉 화형식 및 반독재규탄대회에 참여했다. 1984년 10월 12일 페퍼포그와 최루탄을 앞세우고 학내로 진입하던 중 무장경찰의 돌멩이에 후배 신정호(심리학과 1년)군이 뒤통수를 맞아 두개골이 파손되는, 일명 '10·12사건' 시위에 다수의 선후배와 함께 가담했다. 이 사건으로 꾸러진 <전남대 경찰난입 및 폭력사태대책위원회>에 또 적극 가담하여 돌을 던진 경찰에 대한 수사

와 학원폭력 사과를 요구하며 10월 15일부터 실시한 중간고사 거부 투쟁에 동참, 중간고사를 거부하여 84년 2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다. 3학년 때인 1985년에는 <한국사회연구회>(전 독서잔디) 회장으로 선출되어 씨클 조직의 관리와 후배들 의식화 교육을 주도했다. 4-5월에는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4·19혁명계승제', '5·18 진상을 규명하라' 등 수십 건의 플래카드와 대자보를 제작했다. 또 후배들과 함께 5월 18일 '5·18진상규명투쟁위원회'가 중앙도서관 앞에서 주도하는 추모제 시위에 참여했고, 교내시위 후 수백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금남로, 계림동 등에서 유인물을 뿌리며 가두시위를 했다. 5월 이후 가을부터는 <5월진상규명투쟁위원회>(투쟁위원장이 씨클 독서잔디 직속 선배인 영어교육과 환경이었음) 조직책과 연결책으로 지목되어 비공개 수배를 받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11월경 집 앞 골목에서 잠복 중인 사찰기관원에게 연행될 위기를 겪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본인의 집 입구 쪽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복했다가 정운영이 집골목으로 들어서자 불시에 검문을 했으나, 그는 이름을 숨기고 친구 집인 옆집으로 들어가 그 집 옥상과 담을 넘어 가까스로 탈출했다. 그 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의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냈다. 사찰기관은 당시 잠시 도피 중이던 친구의 집까지 찾아와 연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 일이 있던 후 정운영은 함께 민주화운동을 하였던 또 다른 친구의 자취방(광주시 북구 중흥동)에서 다시 3달 이상 도피 생활을 했다.

정운영은 4학년인 1986년 5월 즈음부터는 전남대학교 <반제자주화반파쇼민족민주화> 조직의 비밀 최고지도부인 중앙위원회의 일원으로 당시 학내 및 가두시위와 조직활동 등을 기획 및 주도했다. 또한 전남대 민주화운동의 최고지도부로서 씨클 조직을 담당, 전남대 씨클연합회와 모든 이념 씨클의 조직 관리와 투쟁 지침 하달 책임을 수행하며 '전방입소 훈련 거부투쟁(5월 2일 수업거부, 철야농성 등)', '5월학살 원흉 및 예측정권타도를 위한 실천대회'(5월), '부천 성고문 폭로와 규탄대회'(9월), '고 박관현 열사를 비롯, 민족민주 열사 합동 위령제 및 실천대회'(10월) 등의 시위를 주도했다. 1986년 6월 즈음에는 광주시 동구 호남동 제일교회에서 씨클 조직책들에게 유인물을 분배하던 중, 당시 조직원으로 유인물을 받아가기로 한 양** (씨클 탈반 활동)이 <놀이패 신명>(문화운동단체) 사무실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제일교회 근처에 있던 신명 사무실로 양**을 만나러 갔다가 사무실 입구에 잠복 중이던 광주동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연행된다. 그는 24시간동안 구금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훈방되었다.

광주 5월 민중항쟁 이후, 학생들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미국이 5월 항쟁 기간에 전두환 군부 일당의 광주로의 병력 이동을 방조 또는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광주시민 한국 민주화 외침과 투쟁을 외면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반외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에 불을 당겼다. 오승훈(83학번, 교육학과)은 4월 14일에 열린 <반제자주화 반파쇼반민주화 투쟁본부>('반반투')에서 파쇼헌법투쟁위원장으로 힘찬 투쟁을 선언했다.

위를 <광주학살원흉 노태우 집권분쇄투쟁위원회(약칭 : 광노특위)>로 개편하고 그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국어교육과 안규심은 그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박관주(83학번, 교육학과)는 1983-1984년 대학 재학 시기에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5·18정신 계승 및 선양을 위해 싸우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또한 5·18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 투신하여 활동하다가 1989년 사문서위조(위장취업)로 불구속기소되었으며 1990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박관주의 학적 및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다. 1983. 3. 5.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했다. 1984. 11. 23. 전남대 2학생회관 내 전남대민주회복추진위원회의 사무실에서 도청 앞으로 화염병을 운반하고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 1984. 12. 29. 이형각, 이천호 등과 경찰에 연행되어 구금되었다. 1984. 12. 31.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고, 1985.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수형되었다. 1986. 1학기에 무기정학을 받았다. 1989. 7. 11.-1991. 7. 23.까지는 노동운동을 했다. 그는 1993년 대통령령에 의해서 재입학했고 1996년 2월에 졸업했다. 2001년 3월 28일 공포된 「시국사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의거, 2001년 9월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중이다.

박관주가 참여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984. 5. 전남대 학내에서 전개된 5·18진상규명시위 참가를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조치되었다. 1984. 3.-1984. 11. 전남대학교 민주회복추진위원회 전투대원으로 대자보 부착, 전단 배포, 주동자보호, 시위대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학원민주화와 5·18진상규명 및 정신계승을 위해 앞장섰다. 1984. 5. 15.-1984. 5. 18. 전남대 내 경영대잔디밭과 5·18광장, 망월묘지, 도청앞 광장 등지에서 전남대민주회복추진위원회 5·18진상규명특별소위가 주최하는 제4주기 5·18추모행사를 준비하여, “5·18진상을 밝히라”는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1,000여 명의 학생 및 시민에게 배포하고 현장에 대자보판을 제작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1984. 9. 4. 광주 북구 임동 소재 서림초등학교 앞에서 학생 150여명을 모아 “2천 광주시민 학살한 전두환 규탄”이라는 시위를 주도하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1984. 9. 22. 광주시 충장로 소재 산업은행 앞에서 학생 150여 명을 이끌고 “5·18 광주민중의 피를 마시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물러가라”고 외치는 시위를 주도하고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경찰의 시위대 연행을 방어하기 위해 투석전을 했다. 1984. 10. 10.-1984. 10. 12. 전남대 교내에서 박관현 열사 추모행사를 개최하여 학생 1,000여명을 모으고 『민주함성』 특집호를 배부했으며, 5·18진상규명과 집시법 폐지, 박관현 열사 추모동상 건립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가두로 진출하는 시위대를 보호하고자 화염병을 제작·운반·배부·투척했다. 1984. 11. 21. 전남대 5·18광장에 학생 300여명을 모이게 하고 <전국학생총연맹호남지역평의회> 결성식을 행하면서 전두환 정권 일당독재 타도, 장기집권음모 분쇄 등의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성명서

1,000여 장을 배부했다. 1984. 11. 23. 광주시 금남로 총장로 등지에서 전남대 민주회복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5·18진상규명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독재타도” 가두시위를 준비했다. 그는 나종훈, 서정현 등과 함께 시위대 보호용 화염병을 제작하고, 이를 총장로 소재 아라모드당구장 옥상에 은닉하여 시위에 사용하려다가 이형각, 이천호 등과 경찰에 수배되었으며 같은 해 12. 31. 구속되어 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속칭 ‘아라모드 화염병사건’이다.

류영룡(84학번, 교육학과)은 교육학과 재학 중에 5.18 진상규명과 전두환 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과 교육민주화 투쟁에 참여하기 위한 수업 거부를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에 교양 교과 교수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으며, 1986년 2학기에 전공 교과에서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다. 또 그는 불법 연행과 구금 및 폭력, 가택 수색 및 사찰을 당했다. 1986년 4월 즈음에 광주 YWCA의 백기완의 민주화 시국 강연 후 산돌의 팀장 오현숙 및 산돌 회원인 85학번 후배들 및 시민들과 함께한 가두 시위에서 류영룡은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붙잡혀 경찰버스에서부터 청바지를 입은 ‘백골단’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당했고, 광주역 앞 파출소에서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맞댄 상태로 등과 머리를 짓밟혔다. 이후, 광주서부경찰서에 억류되어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적이 있다. 또한, 교육학과 문현승의 주도하에 1987년 2월부터 6월 21일에 벌어진 “살인고문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투쟁 기간에 5.18 진상규명 및 학살 원흉 처단 투쟁, 호헌철폐 및 직선제 쟁취 투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동년에 전남대 반외세반독재 구국학생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문현승과 같은 교육학과 학생으로 항상 함께 시위하였다는 이유로 류영룡의 집이 가택 수색을 당했고, 그 이후 몇 달 동안 경찰의 추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 다녔다. 류영룡은 1984년 입학 이후 사범대 내 비공개 조직인 ‘산돌’에 가입하고 5.18 진상규명 및 전두환 독재정권 타도를 위해 계속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사범대 내 비공개 조직인 산돌의 투쟁 시기에는 ‘광민’이라는 가명을 쓰며 늘 경찰과 학생과의 감시를 의식하며 숨죽이고 살아야만 했다. 이 시기에는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쓰면서 보안을 유지했다. 산돌 구성원은 투쟁가로서의 소양과 힘을 다졌고, 교내의 시위와 시내의 가두 시위를 통해 실천가로서의 마인드셋을 정립하였다. ‘산돌’의 구성원은 교육학과 83학번 오현숙, 문현승, 84학번 국사교육과 몇몇 동기들과 후배 85학번 국사교육과 정종재, 교육학과 안경희, 그리고 86학번 후배 등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며, 졸업할 때까지 남광주 파출소 앞, 광주 우체국 앞, 금남로 등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벌어진 가두시위 및 농촌활동에 참여하였다.

류영룡은 1985년에 문현승, 오현숙 등과 함께 5.18 진상규명투쟁위원회, 민주쟁취 민중수호 민족통일 삼민투쟁위원회에서 주관한 각종집회와 유인물 배포 선전 활동과 가두 시위에 참여하였다. 1985년에는 오현숙의 주동 하에 광주 본촌

공단에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처우 보장을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자는 유인물을 뿌렸다. 그해 가을에는 전남대 경영대학 앞의 노천광장에서 택시 노동자들과 연대투쟁 선포식을 전개하고 시위를 벌였다. 공개 조직인 사범대학생회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시국관련 시위 및 독재정권 투쟁과 교육민주화 투쟁을 하였다.

류영룡은 1986년에는 교육학과 학생회장을 하면서 교육학회를 학생회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로써, 학과 학생회와 사범대학 학생회 주도하에 5.18 진상규명과 반독재투쟁과 교육민주화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1986년에는 사범대학생회장인 임종필과 함께 5.18 진상규명과 5월학살원흉처단을 투쟁을 위한 시위를 교내와 교외에서 벌였다. 그는 독재정권의 비민주적인 교육의 척결을 위한 투쟁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사범대학 최초로 학회 총회를 거친 후에, 사범대학 2호관인 교양학부 앞 잔디광장에서 수업 거부를 비롯한 총투쟁선포식을 하였고, 교내 시위를 통해 모든 사범대학 학생의 동참을 촉구하였다. 1987년 8월에는 사범대학 학생회 주최 <교육운동 활성화를 위한 현직교사와의 토론회>에 참여하여 현직교사들에게 교육운동의 지표와 교원노조 조직화 방법을 설명하였고, 학습을 위한 교육학회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세미나 방법을 설명하였다. 1987년 3월에는 사범대학생회 소속의 <민족민주교육위원회>의 설립에 주축으로 참여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비인간화 교육을 자행하는 전두환 독재정권 타도와 교육민주화를 위한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였다. 또한, 그는 비민주교육을 강요하는 전두환 정권 타도를 위한 단결과 투쟁의 실적을 호소하는 신문을 제작하였다. 그는 전라남도청 옆 인쇄소에서 신문을 찾아 故강덕호(84학번, 생물교육과) 동지와 함께 사범대 학생과의 감시, 사찰 당국과 공안원의 단속을 피해 기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강원대학교까지 이송하였다. 동년 <전국사범대학생연합>이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전국의 모든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신문을 각 사범대학 대표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는 1984년부터 87년까지 여름방학 기간에 무안군 현경면 나드리 마을로 농촌봉사활동을 갔고, 1986년에는 농촌활동 대장으로 참여하였다. 이 시기의 농촌봉사활동은 낮에는 일손 돕기를 하였고, 밤에는 마을 청년 및 주민과 함께 시국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 이 시기의 농촌봉사활동은 농촌문제의 이해를 통해 농민과의 연대투쟁 정신을 고취하는 학생운동의 연속적인 과정이었다.

류영룡에게 사범대 재학 시절 2학기에 주어진 임무는 5·18 진상규명, 독재정권 타도를 위해 민주적 총학생회 및 사범대학 학생회를 구성하는 일이었다. 학생운동 세력의 학생회장 당선을 위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선거운동 조직에 참여하고 대중을 상대로 후보자 추천 연설을 하였다. 1984년 학원자치화 및 자율화 운동이 <총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후에 1985년 3월 15일에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출범하였다. 1986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황일봉의 선거캠프에 참여하였고, 1987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인 김승남

의 당선을 위해 전남대 5.18 광장에서 후보자 추천 대중 연설을 하였으며 캠프에서 선거작업을 하였다. 전남대 사범대학 학생회장인 1986년 임종필과 1987년 최명주의 당선을 위해서 선전 활동 및 대중 연설을 하였다. 그는 이들을 당선시켜 학생 대중을 규합하고 5.18 진상규명과 반독재투쟁, 4·13 호헌철폐 투쟁 등의 시국사건과 관련한 투쟁, 교육민주화투쟁을 하였다. 전남대 총학생대의원회의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시국과 관련한 투쟁을 논의하여 실천하였고, 전체 학생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요 안건과 예산을 심의·의결하였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진상을 규명하는 투쟁을 학교 내와 광주 시내에서 스크럼을 짜고 “불법고문치사 주범 전두환을 처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였다. 1987년 6월 9일 최루탄 피격으로 사망한 이한열 열사의 광주 시내의 5.18 광장에서 열린 추모 시위에 참여하고, 정성일 및 시민과 함께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까지 운구 행렬과 함께 이동하면서 “한열이를 살려내라!”를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였다. 전두환 정부가 1987년 4월 13일 ‘개헌(헌법개정)’ 논의를 유보·금지하는 조치(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자 학교 내와 시내의 금남로와 장동로타리 등에서 모인 시민과 학생들을 규합하여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6월 항쟁 기간은 교생실습 기간과 겹치는데도 그는 틈을 노려 장동로타리 등 시내 곳곳에서 낮에는 기습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밤부터 새벽까지 4·13 호헌조치 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기태 등과 함께 대중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고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사범대학생회 교지 사림師林의 편집장인 임길진의 요청으로 「한국 사학의 민주화를 위한 시론」을 기고하여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비민주적인 교육과 비인간적 폐단을 고발하였다.

이이동(85학번, 교육학과)은 1966년 4월 전남 광주 출생으로, 1985년 2월 송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85년 3월 전남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에 헌신했다. 이후 1987년 1월 휴학, 입대, 육군 군수사령부 제9탄약창 경비중대에 배치되었고, 1987년 6월 15일 부대 뒷산에서 총격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이동은 2007년 명예 졸업을 했으며 전남대 용봉열사 추모의 벽에 민주열사로서 명패가 모셔져 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이동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김상원(당시 병장)의 말에 따르면 당일(87년 6월 15일) 오전에 10:30까지 5분 대기조를 마치고 1시간 휴식 후 점심을 먹고 14:00부터 총정교육을 실시했는데 조금제 대위(경비 2중대 중대장)가 강연을 하고 나서 대학생이 데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사람 나와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자 이이동 동지를 지목하여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조금제 대위가 분개해서 주먹으로 우측 눈두덩이를 구타,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고 다시 부동자세로 서 있는 이이동 동지의 낭심을 군화발로 구타 실신하자 중대원 중 1인이 이이동 동지를 업어 내무반으로 옮겨 한참 후 의식이 회복되고 아프다고 소리치며 고통스럽게 내무반에서 뒹

구니까 조금제 대위가 이윤일(행정병, 병장)을 시켜 업고 중대장이 뒤를 따라 나갔고 그 후 28분 정도 지나 총성이 들렸다고 한다.”

이운규(85학번, 교육학과)는 1988년 전남대 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 전남대 사범대 학생회장이었다. 그는 동년 10월 10일, '학살원흉 비리주범 전두환 노태우 처벌을 위한 전남대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장으로서 교내외 각종 집회와 시위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전두환 군부의 1980년 5월 광주학살 만행을 배후에서 용인하고 협조한 미국에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미국은 전두환 군부의 병력 이동을 방조했으며, 그들의 국익을 위해 광주시민과 한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했다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다. 미국은 신군부에 의한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 만행이 자행된 이후에도 미국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정권을 잡고 독재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권을 지원하고 있었다. 1989년 1월 18일 상기 특별위원회의 광주 미문화원 점거시위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도된 저항 투쟁이었다.



[사진 4] 전남대 총학생회 산하 학살원흉비리주범 전두환 노태우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시위 장면

3) 1980년 5월 진상규명 투쟁의 대중화

학원자치와 자율화 투쟁의 전개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부활하고 총학생회 중심으로 5·18진상규명 투쟁이 전개되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집회에 참여하는 대중을 조직하여 세력화할 수 있도록 사범대학 학생회장의 운동권 출신의 당선 및 학과의 학회장 장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84년 이후 학원민주화와 학생 자치기구 설립을 위한 투쟁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운동 활성화를 위한 대중조직가 양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범대학에서 87년 총여학생회 회장으로 박춘애, 87년 총여학생회 섭외부장으로 김혜자가 활동하기도 하였다. 씨클 중심의 학생운동은 1986년을 거치면서 변화를 겪는다. 씨클 조직의 취약한 대중성과 소그룹화를 '씨클주의'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다. 1984년부터 사범대 내에서는 대중조직가 양성 및 대중조직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1985년부터 사범대학 학생회장으로 운동권 출신들이 당선되기 시작하였고, 학과 학생회장은 1986년부터 당선되었다.

김혜주(83학번, 생물교육과)는 사범대 내의 인문, 어문, 자연으로 나뉜 3개의 언더팀을 오현숙 등과 함께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사범대 학생회장 및 각 학과의 학회

장 등이 배출되었으며 사범대학이 많은 운동가를 확보하여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전남대 학생운동 조직을 대중화된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동아리 중심 활동을 보완할 단과 대학별 조직체계를 만들었다. 이 중 조직력이 가장 높은 사범대는 3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범대 학생회와 학과별 학생회 활동이 대중 조직화를 실천하게 되면서 대중적인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사대의 언더 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함께 모여 사회 전반의 문제를 공부하고 토론하여 조직의 질적 수준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5·18 진상규명 및 미국 규탄 활동이 대중적으로 진행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오현숙(83학번, 교육학과)은 1983년 무등봉사반 씨클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사범대 내 언더 팀 가운데 인문계 팀을 맡아서 후배들을 의식화하며 투쟁을 전개했다. 그는 인문계 팀을 이끌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팀원들이 학생운동가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지리산 등반 등을 통해 팀원 간 연대 및 우의를 다졌으며 5·18 진상규명과 파쇼정권 타도를 위해 각자의 비전을 갖도록 독려했다. 인문계 팀의 출신으로 사범대 학생회(홍보부장 오숙향), 전남대 총학생회(홍보부원 유은숙), 사범대학 師林의 편집부장(임길진, 안경희), 류영룡(교육학과 학생회장, 민족민주교육위원회), 정종재(국사교육과 학생회장) 등이 있었다. 이들은 민주적인 학생자치 조직의 임원을 맡아 학생들의 힘을 모으고 사범대학이 전남대 학생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오현숙은 팀원이었던 후배 윤리교육과 김흥자와 함께 1985년 11월 9일 광주지방보훈청 앞에서 ‘수입개방 철폐하라’, ‘서민생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살포하는 가두시위를 하다가 연행되었다.

4) 1980년 5월 광주혁명 정신 계승과 6월 항쟁

전남대 사범대 구성원인 교수들은 1980년 5월에 벌어진 시위에서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사범대학 제자들은 보호하고 챙겼다. 당시 교수협의회 회장인 국어교육과 정익섭 교수는 1980년 5월 14일 도청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대성회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오병문 교수는 1980년 5·18 수습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다. 오 교수는 5·18 직전인 5월 8일에 총학생회 주도로 시작된 ‘민주대성회’에 5월 12일부터 참여했다. 그는 전남대에서 “그냥 뭐 무조건 반대한다고, 학생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방직을 거쳐 금남로까지 선두에 서서 시위를 했다. 노희관 교수는 1980년 5월에 학원자율화와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계엄령이 발표되자 학생들과 함께 금남로를 누비며 민주주의를 외쳤다. 자신이 사용하던 심리검사실을 학생들에게 빌려주며 전남대 학생들의 집회계획을 돕기도 했다. 5월 18일 이후에 어느 날 전남대 종합운동장 스탠드에서 학생들을 팬티만 입혀 세워놓고 이미 초죽음이 된 학생들을 다시 치고 패고 하다가 기절해서 쓰러지

면 다시 물로 끼얹고 하는 참상을 목격했던 그는 ‘내가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교수들은 중요 시국사건에 성명서 발표에 참여하였고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였다. 1987년 5월 4일에는 전남대 교수 60여명이 참여한 4.13 호헌조치를 철폐 시국선언에 사범대학 교수 22명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그러한 스승의 뒤를 이어 5월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에 진력하였다. 이는 교육의 어원인 ‘敎(교)-상(상)소(소)시(시)하(하)소(소)효(효), 육(육)유(유)자(자)사(사)작(작)선(선)(養子使作善)’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공부(工夫)에서 공(工)은 천(天)과 지(地)를 연결(1)하는 것이고, 부(夫)는 하늘과 땅하늘과 땅(二)을 연결하는 주체가 인간(人)이라는 것이다. 공부의 의미는 “달혀 있는 완고한 인식의 틀을 깨는 일” 또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신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범대학 구성원들은 이러한 교육과 공부를 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정도를 걸어왔다.

1980년 이후, 지난한 진상규명과 민주 쟁취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누적되고 강화된 학생운동 역량과 사범대학의 각 학과 학생회 소속의 학회를 통한 대중 조직화의 성공으로 축적된 사범대의 투쟁역량은 호헌철폐 독재타도 투쟁인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국사교육과 84학번 조이권은 전남대 6월 민주항쟁동지회 회장으로 1987.01-1987.07. 기간의 6월 항쟁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투쟁 과정에서 사범대의 학생들은 여러 역할을 담당하였다. 소위 시위용품 운반조, 전투조, 주씨(주동자)와 후보(주동자 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광업(84학번, 국어교육과)은 6월 항쟁 과정에서 사범대를 전체적으로 관리했다. 정성일은 전투조 책임자로 활약했다. 전투조 책임자는 투쟁과 시위를 위해 조직원에게 ‘오더’를 내리고 함께 전투를 벌인다. 전투조에 참여하여 ‘전설적인 선수’로 등극한 학생들은 김설오, 박종한(85학번, 수학교육과)과 황인, 장우기(85학번, 교육학과) 등이 있다. 유은숙(85학번, 교육학과)과 김희선(85학번, 유아교육과)은 ‘꽃병 또는 F/B’ 등의 시위용품을 시위 현장까지 나르는 운반조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국사교육과 학생회장인 정종재(85학번)는 최선희(86학번, 국사교육과)와 함께 학과의 학생회를 쇄신하였고, 학과 내에 여러 학회 및 연구분과를 조직하고 학생들을 규합하여 5월 정신을 계승하고 6월 항쟁에 출전해서 참여하였다. 그는 국사교육과의 박기순, 신영일, 문승훈, 이행숙, 조이권 등의 선배들이 벌인 사회와 교육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펼친 빛나는 투쟁의 전통을 이어갔다.

정성일(85학번, 윤리교육과)은 총학생회 홍보부와 남대협(전남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선전국에서 활동하며 『민족전대』, 『해방남도』, 『참세상증언대』 등 기관지 제작에 참여하였다. 군부독재의 검열과 탄압 속에서도 이 기관지들은 학생과 도민에게 진실을 전하는 불씨가 되었다. 1987년, 정성일은 사범대학 오월대 대장직을 수행하며 민주화 투쟁의 최전선에 섰다. 오월대는 5·18의 정신을 계승하여 조직된 전위 투쟁 대오로, 황인·장우기·김설오·박종한·김보영·김행구·박정근·박재천·장관호 등의 동지들과 함께 구성되었다. 오월대는 학내 시위와 가두 시위의 선봉에서 대열을

이끌었으며, 시위대 보호, 주동자 피신 엄호, 안가(安家) 은신처 이동을 도맡았다. 그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직격으로 맞아 두부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함몰 자국이 남아 있어 당시 진압의 폭력성을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다.

정성일이 증언하는 당시 치밀하게 조직된 저항의 연간 활동 달력은 다음과 같다. 학생운동 조직원들은 **1월** 학과·동아리별 학습 및 MT로 한 해를 준비하고, **2월** 신입생 예비대학을 통해 새내기들에게 시대의 과제를 전달하였다. **3월** 총학생회·단과대학 출범식과 학과별 학생회·학회·진군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4월** 4·19혁명 기념식으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되새겼다. **5월**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으로 분노와 결의를 다지는 달이었으며, **7월**에는 농촌 봉사활동과 학회·동아리 학습 및 MT로 민중 연대의 토대를 넓혔다. **9월** 2학기 학생회·학회 활동 재개, **10월** 대동제와 단과대학 축제, **11월** 총학생회·단과대학·학과 학생회 선거로 한 해의 조직 역량을 결산하였다. 그가 증언하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주요 투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전방위로 확산되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투쟁** - 학살의 책임자를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싸움
- **반외세 자주화·반독재 민주화·조국통일 투쟁** - 군부독재와 외세 종속에 맞선 총체적 저항
- **학원민주화 투쟁** - 대학의 비민주성 및 비리 사학을 해체하고 자주적 학생 자치를 쟁취하는 운동
- **야학 강사 활동** - 노동자·농민과의 연대를 위한 교육 실천
- **노동 연대 투쟁** - 공장 담장 너머 민중과 손잡는 현장 연대
- **농촌 연대 투쟁** - 농민 문제를 학생운동의 의제로 끌어안는 실천

정성일에 의하면, 1987년은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었다. **1월**, 서울대 박종철 학우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다. 부검에 참여한 황적준 박사가 고해성사를 통해 진실을 폭로하고, 정의구현사제단이 명동성당 시국성명을 통해 이를 세상에 알리면서 전국적 분노에 불이 붙었다. **4월**, 전두환 군사정권이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며 직선제 개헌을 원천 차단하자 저항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호헌 철폐와 직선제 쟁취를 외치는 함성이 전국을 뒤덮는 가운데,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열사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쓰러졌고, 끝내 운명하였다. 이한열 열사의 서울 노제와 광주 망월묘역 운구 행렬에 100만 시민이 운집하며 6월 항쟁은 절정에 달했다. 마침내 **6월 29일**, 노태우의 시국 수습 선언으로 군부는 항복하였고, 그해 **12월**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전 국민의 손으로 치러지며 '87년 체제'의 서막이 열렸다.

5) 1980년 5월 광주혁명 정신의 사회적 실천

교육과 사회의 이분법적 분리를 경계한다. 교육적 주체(educative subjects)가 인간의 삶의 양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종교, 예술 등을 교육의 배경으로 보느냐, 교육 자체를 전경으로 보느냐에 따라 교육가의 사명이 달라진다. 이에 관한 역사적 증거는 바로 5·18과 사범대학 구성원들의 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사적 영역을 넘어 개인이 속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성찰과 실천의 변증법적인 과정이다. 이 글에서 나열한 역사적 사실이 누구에게는 과거의 하나인 사실에 불과하지만, 당대를 살았던 누군가는 죽음을 무릅쓰고서, 아니 투쟁 과정에서 죽음을 감내하면서 투쟁하였고, 예비교사로서 자신의 기득권마저 포기하면서 투쟁에 힘썼다. 그 시기에 누군가는 자신의 기대신념과 기대가치를 우선 순위로 삶아 대학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가져야 할 교사로서의 가치관, 정체성, 미래 비전마저도 이미 저만치 물러가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이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것조차도 거부하였다. 그들은 학생운동 과정에서 얻은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온몸을 던졌다. 5·18을 경험하였거나 차후에 5·18 비디옌나 화보를 보고 몸소 투쟁에 가담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주관적인 나(I)와 타자에 의해 평가된 나(Me)가 아니라 5·18민중항쟁과 우리는 하나(We)라는 자기 인식과 사회적 인식을 하였다. 그들은 5·18의 참혹한 장면을 온몸으로 느끼며, 80년 5월 항쟁의 모습을 자신에게 투영하면서 투쟁의 선봉에 서는 사범대학 학생 시절을 보냈다. 이들 사범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시국사건관련성행불량자’로 낙인찍혀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였다. 이후, 끈질긴 투쟁으로 20여 년 또는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교사로 임용되기도 하였다.

3. 5·18 관련 투쟁의 의미: 산 자의 자임(自任)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최후의 5·18민중항쟁 과정에서 상업교육과 이정연 등 대학생들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항거한 사람들 대다수는 기층 민중들이었다. 그들은 도청에서 “싸우기는 우리가 싸울라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랑께” 하면서 학생들을 도청 밖으로 내보기도 했다. 5·18은 한국 사회에 내재하는 모순과 인간에 대한 억압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의 저항이었다. 5·18은 신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아래로부터의 민중항쟁이다. 서슬 파란 유신시대의 종말로 ‘서울의 봄’이 소강상태로 이어지자, 5월 광주시민은 의연하게 신군부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 항쟁 기간에는 광주는 고립되었고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혔지만, 광주시민들은 서로를 챙기며 보듬어 안았다. 80년 5월 광주는 계속되고 있다. 하나는 5·18은 한 고을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생명공동체, 투쟁공동체를 이룬 역사적인 교과서이다. 다른 하나는 유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5·18 유공자는 오늘도 고통에 신음하다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거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을 수도 없이 외치고 투쟁을 벌였지만, 광주시민에게 발포를 명령한 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5·18

묘역에 와서는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외치다가도, 지역 정서를 조장하고 그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은 해괴한 논리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한다.

5·18은 변혁적 역사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를 지키는 항쟁이었다. 5·18은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예비 교육가로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성찰과 변혁의 실천의 길을 제시한다. 사범대학 구성원들은 사회와 교육 앞에 늘 당당하였다. 한 사람이 새길을 개척하고, 다른 사람은 그 길 위에 새길을 내는 과정이었다. 때로는 냉철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강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이었다. 인간을 억압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세력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 그것은 이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과정이 아니라 낡은 것의 해체와 창조적인 발전과정이었다. 한 사람이 성찰하고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나서서 자신의 양심과 의지에 따라 용기 있게 투쟁하는 것은 새길을 개척하는 것이고 타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사범대학 학생들도 그러한 실천을 했다. 사범대학의 구성원들은 앞으로 역사와의 직접 대면과 자아 성찰, 그리고 실천 과정을 통해 거듭날 것이며 성찰한 역사의 수레바퀴로 교육발전과 사회발전을 추동할 것이다.

5·18민중항쟁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에 있어 여러 가지 측면의 반성과 성찰을 가져왔다. 학생들은 5·18 진상규명과 반군부 독재타도, 반외세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역량을 축적했다. 그리고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자각을 통해 사회변혁을 꿈꾸고 열악한 노동현실 극복을 위해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들은 기층 민중과 노동자들에게 그간 축적한 역량을 전수하면서 함께 투쟁을 해야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으로 옮겼다. 이것은 교육학 측면에서 볼 때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과 의식화' 교육이고 일리치, 그람시 등의 사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학생들의 의식화 교육은 한국노동운동사의 발전에 나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사범대학 학생들 가운데 이러한 학원 밖 변혁운동인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오현숙, 오숙향, 박관주, 문현승, 정운영 등이 그들이다.

사범대학의 학원자치의 성과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성찰할 수 있다. 전두환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고 권력을 찬탈한 직후, 광주의 심장부에 자리한 전남대학교는 민주화운동의 가장 뜨거운 거점 중 하나였다. 총칼로 짓밟힌 광주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침묵 대신 저항을 선택했다. 사범대학에는 교육연구회·삼민·산돌·프론티어·사루리 등의 동아리가 활동하였다. 이후 프론티어·사루리를 제외한 동아리들은 해체되었으나, 그 정신은 사범대학 19개 학과별 학생회와 학회로 이어졌다. 이로써 사범대학은 대중 조직화와 투쟁 역량 강화를 통해 전남대 학생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주의의 산실로 자리매김하였다.

사범대학 학생들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

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실천하면서 예비 교육가로서 양심에 반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교육가적인 삶을 실천했다.

4. 나오며: 기억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사범대학의 구성원들은 전환 시대 특히, 80년 5·18광주민중항쟁 전후에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승리도 있었지만 큰 아픔도 가지고 있다. 교수들은 해직되고, 학생들은 제적 및 징계를 받아 학교를 떠났으며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오늘도 그러한 아픔들은 개인사를 넘어서 역사적 사실로 오롯이 서 있다. 그들은 전남대학교 용봉열사 추모의 벽에서 표지석으로 오늘도 살아남은 자들을 맞이하며 더할 수 없는 아픔을 새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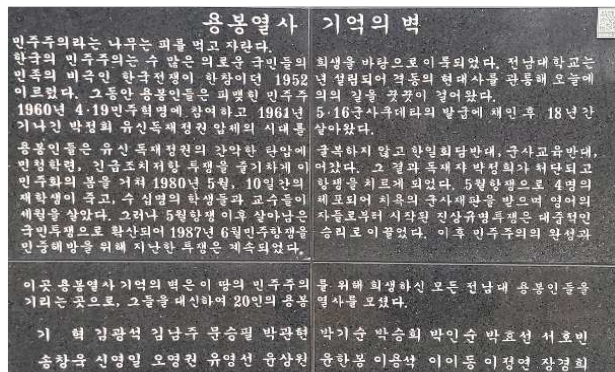


[사진 5] 이정연 열사 [사진 6] 박기순 열사 [사진 7] 신영일 열사 [사진 8] 이이동 열사

역사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사실적 기록이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설이나 파편적인 유물이 되고 만다. 나는 교육발전과 교육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의 모순을 극복해가는 교수들과 동문의 투쟁 정신과 업적이 사범대학의 구성원과 후배들에게 전해져 계승되길 바란다. 교육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현실을 자각하고 교육 자체와 교육여건인 사회의 변혁을 위한 실천을 전개해야 자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9] 5·18 국립묘지에 잠드는 5월 유공자의 영령



[사진 10] 용봉열사 추모의 벽

1980년 5월의 혁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살린다.” 12.3일 반란이 일어나는 밤에 죽은 자들은 산 자들에게 용기와 신념을 주었고, 산 자들을 살렸다. 5월의 혁명정신이 그 밤에 산 자들을 일으켜 세웠다. 용봉열사들은 기억의 벽에서 항상 의롭게 우리를 맞이한다. 침묵으로 다시 우리를 일깨운다. 그리고 오늘도 5·18 유공자는 영령이 되어 5·18 국립묘지에 잠든다.

성찰은 개인과 조직이 체험한 경험을 ‘정확한 사고’를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용기 있는 실천’을 할 때 완결되는 것이다. 성찰의 방법은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합일에 의해 새로운 실천을 낳는 프락시스(praxis)이어야 한다. 나는 1980/1990년대가 이러한 성찰과 실천의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성찰과 실천의 변증법은 죽은 자와 산 자가 역사적인 대화를 하게 하고 인간에게 각성을 가져온다. 그 각성은 우리의 뇌리에 꽃혀서 변혁을 위한 실천에 불을 당긴다.

교육은 ‘과정이고 실천’이다. 교육의 과정은 성찰이고, 교육실천은 성찰을 실행하여 변화를 끌어낸다. 따라서 성찰과 실천, 교육과 사회는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성찰과 실천의 변증법은 교육과 역사/사회와 끊임없이 교섭하게 하고 합일을 이루며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범대학 구성원들의 반성과 실천의 결과로서, 하나는 교육발전 측면에서 의식개혁과 교육제도를 개혁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육의 환경인 정치체제와 사회제도를 개혁했다. 이처럼, 사범대학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능력을 다해 헌신했다. 그것은 교육자적인 양심에 따라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진력하는 과정이었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다. 오늘의 나의 말과 행동은 개인사이다. 이것들이 모이면 개인사를 넘어 사회의 역사다. 이 둘은 모두 개인과 사회를 구속하거나 변화시키는 독립변인이거나 매개변인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변혁하는 독립변인이다. 즉, 교육이 사회와 역사를 변혁하는 매개변인일 수 없다. 교육은 그 자체로 합목적이며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최고 존엄을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가는 교육의 고유한 원리를 내면화하여 교육의 대상인 인간성을 고양하기 위해 억압적 사회체제와 비인간적 교육제도를 강요하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그 길에 첫발을 내딛는 데에는 두려움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들과 교수들의 투쟁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울림을 주는가.

참고문헌

- 나간채 편 (1997). **광주민중항쟁 5월운동연구**. 광주: 5·18연구소.
- 5·18기념재단 (2009). **5·18의 기억과 역사1 교육가편**. 광주: 심미안.
- 이재의(2022). **민주인사들의 봉심정**.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19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활용방안 토론회’.
-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9). **저항과 재현**.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9). **저항과 재현 2**.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20). **5·18과 이후 발생, 감응, 확장**.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22). **전남대학교 민주화운동 담**.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전남대 5·18연구소 편 (2022). **5·18민주화운동의 기억과 재현 : 이미지, 텍스트, 장소**. 광주: 전남대출판문화원
- 전남대6월항쟁동지회 (2021). **아! 다시 부르는 청춘의 노래: 전남대학교 6월 항쟁사**. 광주: 전남대6월항쟁동지회 출판위원회.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장 정난희 (2024).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50년사**. 광주: 도서출판 샘물
- 전남대 총장 (1979-1990). **전대신문축쇄판 5, 6, 7권**. 광주: 전대대학신문사.
- 전남대 총장 (1984-1987). **龍鳳**. 광주: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2022). **전남대학교 50주년 역사: 사람·활동·문화**.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희연, 정호기 편 (2009).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파주: 한울.
- 최정기, 김형주, 양라운, 유경남 (2020).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와 박관현**. 서울: 선인.
-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9).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파주: 창비.

발제2 표지

5·18진상규명과정과 유네스코 등재

안종철 (정치학박사, 前 5·18진상조사위 부위원장)

1. 머리말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6년이 지났다. 1980년에 있었던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이 군부의 독재, 군사반란과 내란, 신군부 내란집단의 불의한 폭력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운 사건이었다. 1980년 광주시민들이 보여줬던 5월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가치는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그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조직적으로 왜곡·은폐하였고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을 탄압하였다. 진실을 향한 국민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고귀한 생명까지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은 어느 정도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여전히 많은 부분 밝혀지지 않고 남아있다.

1997년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신군부 내란집단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광주에서 발생한 계엄군의 진압행위를 내란과 내란목적살인으로 선언하고, 그 수괴인 전두환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규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즉, ① 1980. 5. 당시 계엄군의 과잉진압 및 발표는 신군부 내란집단이 제5공화국을 설립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지, ② 신군부 내란집단은 위와 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지휘계선이 아닌 보안사령부, 특전사령관 정호용, 공수부대로 이어지는 별도로 이원화된 지휘권을 이용하여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지, ③ 같은 맥락에서 1980. 5. 21. 13:00경 발생한 도청 앞 집단발포 등 시민에 대한 사격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명령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군부 내란집단 관련자들은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진압행위로 발생한 사망 등은 시민들의 과격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희생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신군부 내란집단은 5. 21. 13:00경 발생한 도청 앞 발포가 ‘수세적인 상황에서 자구목적을 위한 정당방위’로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계엄사령부는 1980. 5. 27. 상무총정 작전을 끝낸 직후인 5. 31. 「계엄사 발표」를 통해 “광주는 무법천지였으며 폭도들이 무장을 하고 국가의 안녕 질서를 해쳐 유혈 무력진압은 불가피했다”고 발표하였

다. 그 후 국방부는 장병 정신교재를 발간하면서 시위대가 선제무장하여 공격해 왔고 계엄군은 정당한 계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위권을 발동하였다고 기술하고 교육해왔다. 이후 신군부 내란집단은 1989년 국회 광주특위, 1995년 검찰수사 등에서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주에서 계엄군의 과잉진압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음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군부 내란집단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가. 진상규명운동과 책임자 처벌

5·18민주화운동이 1980년 5월 27일 신군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지만 광주 시민들과 민주화를 갈망했던 국민들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5·18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모든 집회는 "광주항쟁 진상규명하라, 살인자 처벌하라"는 구호로 시작되었다. 김의기,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박승희 등 수없이 죽어간 열사들은 5·18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특히 신군부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유족, 구속자, 부상자들이 5·18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5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촉발된 1987년 6월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였지만 그해 4월 총선을 통해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은 12.12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정치·사회의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국민들은 연일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자 처벌과 5공화국의 비리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인 결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게 했다. 청문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이 공중파 TV를 통해 국민들의 안방에까지 가감없이 전달됨으로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1993년 5월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5·18 진상규명운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그 배경에는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와 전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 시효 만료(1995년 8월 15일)가 임박했다는 점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입장이 소극적이라는 점 등이 작용했다. 1994년 3월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책임자 고소 고발사업,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등을 목적으로 그해 5월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94년 7월 294명의 연서로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생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법률적 대응을 했다.

책임자 처벌운동은 더욱 격화되었고, 마침내 1995년 10월 26일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 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신군부의 부정비리 청산도 함께 주장했다. 그리하여 12월 19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이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나. 피해보상과 기념사업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정부의 공식 대책은 1988년 4월 1일에 발표되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구성되었던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견해를 따른 ‘광주사태 치유방안’이었다. 관련자의 피해 배.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 7월에 제정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제6차 보상이 마무리 되었고 7차 보상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6차까지 인적 피해는 당시 사망자 155명, 상이후 사망 110명, 행방불명 81명, 상이자 3,378명, 기타 910명 등 총 4,634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 신체에 상흔을 입은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일 뿐이고,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와 파생적 피해는 가늠마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사를 넘나들던 고통을 기억하며, 의의를 기념하는 장소와 공간이 조성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은 주로 망월묘역에 안장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복권되면서 국립5·18민주묘지를 망월묘역 옆에 1997년에 새로 조성되었다. 아울러 1999년 4월에 5·18민주화운동에서 연행되어 구금 및 재판받았던 옛 상무대 영창과 법정 그리고 헌병대 막사가 위치하던 인근에 재현되었다. 한편 계엄군의 지휘본부가 설치되었던 옛 상무대의 일부에 5·18기념공간이 조성되어, 1980년의 민주화 열기와 신 군부에 대한 항쟁의 계승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군들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과 그 일대의 공간은 1993년 국가의 약속에 따라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으로 광주와 전남에는 수많은 역사와 기억의 터가 생성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던 장소와 공간들 즉 광주 30개의 장소, 전남 73개의 장소에 사적지 안내 표지석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었다.

3. 유네스코 등재추진

가.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논의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맨 처음 문화재 전문가들이 제시하였고 이것에 관한 논의가 일찍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2000년 9월 2일에 한국기록학회가 주최했던 제5회 월례발표회에서 허권(당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이 「세계기록유산의 소개 : 메모리 오브 월드사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이하 5·18)과 6·25전쟁, 3·1운동 등 한국현대사에 관련된 자료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태(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는 5·18 관련 자료의 방대함과 체계적 관리를 예로 들면서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될 가치가 충분하다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김희태 전문위원은 2003년에 목포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강의하면서도 5·18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유네스코 순천협회 이태호 회장은 2009년 2월 18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유네스코 평화센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아태지역 훈련 워크숍」에서 이상용, 허권 본부장 등에게 5·18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태호 회장은 다음날인 2009년 2월 19일 광주시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타진했으나,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광주시청 관계자들은 유네스코의 성격이나 세계기록유산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태호 회장은 2월 24일 서울시 명동에 위치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전택수 사무총장을 방문해서 허권 정책사업본부 본부장, 김귀배 문화커뮤니케이션 팀장을 만나 5·18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주제로 논의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일부 인사들은 시기상조임을 들면서 적극적 개입을 망설였으나,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젊은 실무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한국위원회의 측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박만규 교수에게 5·18기록물 등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만규 교수는 5·18연구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5·18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물로 등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박만규 교수는 3월 16일 5·18연구소 운영위원과 연구위원을 비롯해 광주·전남의 유네스코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해결책은 도출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5·18연구소는 내부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했으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였다.

나.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논의

2009년 6월, 이태호 회장, 박만규 소장과 김희태 전문위원이 만나 준비모임 결성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협의했다. 이들은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5·18기념재단, 유네스코협회연맹 순천협회에 등재추진과 관련해 협의체 수준의 작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이들은 7월 1일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들을 만났다. 세계기록유산 제도가 지닌 중요성, 5·18기록물의 가치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청 관계자들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관 주도의 등재추진은 적절하지 않

다는 의견을 냈다. 즉, 광주광역시는 5·18기념재단과 달리 행정기관이므로, 실무적인 일은 민간단체인 5·18기념재단이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민과 관이 함께 5·18기록물 등재를 추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7월 2일 오전 11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민관협의체 1차 모임이 열렸다. 본 논의에 들어가자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참석자들의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청과 5·18연구소는 자료 분산으로 인해 자료의 수집 및 정리 기간의 장기화, 집중적 사업추진의 어려움, 가치 평가 등의 문제들로 난색을 표했다. 등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했다. 등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도 논란이 되었다. 게다가 등재에 실패했을 때 직면하게 될 정치·사회적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 중압감으로 작용했다.

1차 준비모임을 개최한 지 2달가량이 지난 8월 31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잠정목록 신청 공고문」이 게시되자 2차 모임이 9월 18일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실에서 열렸다. 3차 모임은 9월 22일에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실에서 열렸다. 이 모임에는 2차 모임 참석자들과 안종철 박사가 처음으로 함께 했다. 안박사는 광주광역시에 재직하던 당시 ‘5·18사료총서 편찬’ 작업을 주도했고 5·18관련 자료를 잘 알고 있어서 이 일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어서 함께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문화재청의 신청서 제출 마감(2009년 9월 말) 일정에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네스코 본부의 일정(2010년 3월 말)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안종철, 김병인, 정호문, 김점옥이 팀을 결성해 신청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안박사는 5·18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들의 대표에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알리고, 해당 실무자들이 소속 기관장 또는 대표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10월 1일 회의 참석자들에게 발송했다. 그리고 10월 7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허권 본부장, 김귀배 팀장 등과 만나 등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협의했다. 면담 결과는 준비모임 구성원들에게 메일로 회람되었다.

10월 12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4차 모임이 열렸다. 안 박사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방문 결과 보고 이후 각 기관들의 입장 확인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청 관계자가 참여 보류 입장을 밝혔다. 등재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문제였던 것이다. 그는 시장에게 보고하지도 못하고 국장에게 보고하는 선에서 민관협의체 참여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들이 광주광역시청의 입장에 대해 그 수준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차 확인했으나 변함이 없었다. 광주광역시청의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은 그간에 진행되었던 논의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이로 인해 참석자들은 5·18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가 공동으로 5·18기록물 등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5·18기념재단도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5·18연구소도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전남대학교의 부설 연구소라는 한계로 인해 대학 본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재정 지원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문제로 참석자들은 난감해졌다.

다. 안박사의 구상과 실행

5·18기록물 등재 작업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가 어려워지고 논의가 더 이상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참석자들은 민관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회의가 겉돌자 안종철 박사는 모든 진행 사항 일체를 일임해주면 어떻게든 추진해 보겠다고 제안했다. 난관에 빠져있던 참석자들은 이에 동의했고, 이는 곧 민관협의체가 해산하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것은 안박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안종철 박사는 등재 추진에 대해 조언을 해 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귀배 팀장과 김희태 전문위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서신을 보내고,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일을 찾았다. 우선 유네스코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해 그동안 등재된 세계기록유산 목록을 점검했다. 특히 현대사 관련 기록물의 신청서를 세심히 분석했는데, 5·18기록물의 등재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1970~80년대 군부독재를 경험했던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의 인권 관련 문서가 등재된 것을 보고, 오히려 늦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형사재판기록과 필리핀 민주혁명 당시 방송국 녹음테이프가 등재되었다는 점은 한층 고무적이었다. 5·18은 여러 종류의 성명서, 선언문 등의 인권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사형선고 문서 그리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록한 필름과 사진 등이 관리되고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미 등재된 다른 나라들의 문서나 기록보다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훨씬 수준이 높다고 판단됐다.

5·18기록물 등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2009년에 당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에게 등재추진계획서를 직접 제시하고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A4용지 10매 정도로 등재추진계획서를 작성한 후 광주광역시장 비서실을 통해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시장의 바쁜 일정상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등재추진계획서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전달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국회의원을 매개로 하는 것이었다. 그가 바로 김영진 국회의원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구민주계로 박광태 시장과 절친한 사이였다. 그는 ‘국회 5·18청문회’ 등을 거치며 5·18과는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이었고 또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이었다. 10월 30일, 김영진 의원실에서 첫 면담이 이루어졌다. 등재추진계획서를 읽고 설명을 들은 김영진 의원은 즉석에서 찬동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의 말미를 요구했다. 유럽 출장 일정이 이미 잡혀 있어 당장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광주광역시장에게 등재추진을 요청함과 동시에 예산 협조를 약속 받은 후 안종철 박사와 수차례 회의를 갖고, 진행 절차와 방법을 협의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최선의 추진위원회 구성은 범시민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었으나, 시일의 촉박함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실무 단위도 충실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박하게 추진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4.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구성과 신청서 작성

가. 추진위원회 구성

5·18기록물의 등재 추진에 필요한 재정이 광주시청을 통해 확보되자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결성하였다. 김영진(국회의원), 안순일(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윤수(전남대학교 총장), 전호종(조선대학교 총장), 김혁중(광주대학교 총장), 윤광장(5·18기념재단 이사장), 정수만(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양희승(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신경진(5·18민주화부상자회 회장) 그리고 안성례(오월어머니집 관장) 등 10명이었다. 그리고 박광태 시장, 조비오 신부, 강신석 목사, 지선 스님 등 4명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했다. 추진위원장은 호선으로 김영진 의원이 선출되었다. 추진단장으로 안종철 박사가 선임되었다. 등재추진에 합당한 5·18단체가 참여하고 주요 대학총장들 그리고 종교계 원로들이 참여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언론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다. 이에 박만규 교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과의 관계나 협조 등을 이야기하면서 전후 맥락과 좌우 관계를 주시해야 함을 조언했다. 이것은 보수 세력의 반대 운동이 촉발될 가능성이 예측되므로 등재작업을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실무자들도 언론에 노출하지 말고 심도 있게 조용하게 준비하라고 몇차례에 걸쳐 조언해 왔다. 박만규 교수와 유네스코 실무자들의 우려는 기우로 끝나지 않고, 보수 우익 세력의 반대운동이 나타남으로서 등재에 큰 위기로 작용했다.

나.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추진위원회의 조직을 구성하고, 사무공간을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서 작성이 진행되었다. 신청서 작성은 안종철 박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했는데, 그는 5·18에 관련된 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에는 1988년부터 전남대학교 송기숙 교수 등이 5·18 자료 수집과 현대사 연구를 위해 설립한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1996년부터는 광주시청 ‘5·18전문위원’으로, 2000년부터는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던 경험이 기반이 됐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도 광주광역시청의 5·18사료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자료총서를 발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안종철 박사는 논리적이고 창조적으로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를 작성할 방안을 고민했다. 먼저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남아공, 필리핀에서 신청했던 신청서들을 분석했다. 각 항목별로 비교표를 만들고 공통점을 도출한 후, 5·18기

록물신청서의 구성 방안을 구상했다. 자료의 성격을 따져보니, 이미 등재했던 나라들 가운데 남미의 사례들이 5·18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신청서 작성 모델로 삼아 그 문서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물 분류의 대강을 잡고 5·18의 상황에 견주면서 재정리했다. 약 1개월 동안에 만들어진 신청서의 틀을 수차례에 걸쳐 수정하고 검토했다.

신청서 개요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그 의미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신청자 정보는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기록물 보관기관장으로, 등재 신청할 기록유산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로 결정했다. 특히 사항으로는 관리계획(Management plan)부분에 다른 신청서에는 없는 색다른 내용을 담았다. 대부분 신청서에는 기록물 관리를 위해 항온항습 장치를 설치하고 화재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시설을 완비하겠다는 내용 등을 적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등재가 되면 5·18민주화운동 기록관(Archives)을 설립하고 그 곳에 5·18민주화운동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 후세대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을 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광역시장도 여기에 동의하고 서명함으로써 국제기구와의 약속이 되었고 이 약속에 따라 광주에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설립되게 되었다. 이처럼 2010년 2월 말경 관리계획을 포함해 신청서 초안의 작성이 완성됐다. 김희태 전문위원, 정근식(서울대학교 교수), 박만규(전남대학교 교수), 김기곤·오승용(이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 정호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원), 안정애(담양고등학교 교사, 역사학), 이재의(전라남도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장), 김준태 시인(조선대학교 교수) 등이 신청서 초안을 꼼꼼히 읽고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었다.

신청서가 완성되자 영문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영문 번역은 광주에서 ‘국제교류재단’ 소장으로 있는 신경구 교수에게 부탁했다. 신 교수는 취지를 듣고 흔쾌히 무료로 번역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됐음을 알리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해줄 것을 부탁했다. 2월 말에 대강의 영문 신청서가 작성되었다. 이를 더욱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광주영어방송’ 김미영 차장으로부터 엘튼(Elton John Laclare) 교수를 추천 받았다. 엘튼 교수는 광주영어방송에 자주 출연했고, 해외에서 발행된 책들 가운데 양서를 선별하여 방송을 통해 소개하는 코너를 담당하고 있었다. 2주 동안 엘튼 교수의 손을 거친 영문 신청서는 더욱 좋아졌다. 또한 문장의 정확성과 사실 확인을 위해 5·18에 애정을 갖고 많은 연구를 해왔던 조지 카치아피카스(George Katsiaficas) 교수에게 보내 외국인 이름 등과 전반적인 교열을 의뢰하였다.

안종철 박사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문(Consultation) 부분에 국제 인권단체의 추천서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콩의 ‘아시아인권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문정호를 통해 5·18기록물 등재에 관한 추천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1994년 홍콩에 사무국을 두고 설립됐는데, 1995년 광주시민연대가 주관한 『해외에서 보는 5·18』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 초대됐던 적이 있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수차례 광주를 방문해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5·18을 잘 알고 있는 단체였다. 안종철 박사가 보낸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의 바실 페르난도(Basil Fernando) 위원장이 서명한 추천서가 도착했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했다.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물 등재 여부는 매우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유네스코는 각 국가들에 보낸 등재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요건심사를 한다. 신청서가 유네스코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작성됐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요건 검토를 통과한 신청서는 세계 각지에 있는 비공개로 심사위원들에게 배포된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신청서는 9명으로 구성된 「등재심사소위원회」(RSC: Register Sub-Committee)에 상정돼 심사 절차를 밟는다. 심사결과는 14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에 다시 상정돼 최종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국제자문위원회가 등재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사무총장에게 권고하고, 사무총장이 이 권고안에 서명하면 등재가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는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2010년 3월 말부터 국제자문위원회가 열리는 2011년 5월까지 진행됐다.

다. 신청서 제출 이후의 활동

시민연대의 국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안과 원장이었던 윤장현(전 광주광역시장)이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추진단은 윤 원장을 방문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전후의 경과와 신청서 작성·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윤 원장은 서유진(아시아인권위원회 고문) 선생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했다. 서유진 고문은 오랜 미국 생활을 떠나 귀국한 뒤, 태국과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5·18을 텍스트로 삼아 인권교육과 인권단체 조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마침 서 고문으로부터 기록유산 분야에서 권위 있는 루자야 아바콘(Rujaya Abhakorn) 교수가 국내 안동 지역에 학술회의 참석차 내한하고, 전남대학교의 초청으로 내방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한편,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2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2010년 3월 접수된 신청 건수는 80여 건을 넘고 있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등재 신청 이후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하지만, 기록유산 프로그램에는 현장 실사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와 시민들의 염원을 알릴 기회가 없었다. 즉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서류심사만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의 기록물들은 현장의 역사성과 시민들의 정서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 등에 대한 실체를 심사위원들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고문서에 비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0년 11월, 유네스코 본부가 보내온 수정과 보완 요구서를 살펴보니,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신청서의 자료 목록 20항목 중에서 성명서와 행정기록물 등 일부 기록

물만이 등재 기준을 충족했다. 이미 중앙정부로 이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다수의 기록물이 기준에 부합한 것이었고,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소장기관의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5·18기록물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2011년 1월 9일, 아카이브 설립 장소에 대한 2안의 내용 즉 구 가톨릭센타에 아카이브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작성하고 영문번역까지 마쳤다. 자료목록을 20개에서 9개로 축소하여 정리하여 완성된 수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보수단체의 반대운동과 결과 발표

가. 등재 반대운동

추진단은 수정신청서를 준비하던 2010년 12월 10일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진성 팀장을 만났다. 전 팀장은 유네스코 본부 출장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전달했다. “한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민협의회’(회장 박창달)라는 단체의 유기남 부회장이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반대할 목적으로 파리 본부를 방문해 스프링거 담당관을 면담하고, ‘등재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추진위원회가 그토록 우려했던 보수단체의 등재 반대 운동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애초에 추진단은 등재 추진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 정치인들이 관여하게 됨에 따라 등재 추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추진위원회 설립, 사무국 개소식, 신청서 제출, 제출 후 신청서 봉정식 등 그동안 실행했던 모든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실무자들도 우려하고 있었고 결국 보수단체가 이를 알게 되면서 문제가 터진 것이다.

추진단은 12월 6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진성 팀장이 파리 본부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면담을 진행했다. 귀국한 전진성 팀장은 한국 내의 의견을 통일해 달라는 유네스코 본부의 입장을 전했다. 보수 단체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수차례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등재를 반대하고 압박을 거듭하고 있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담당 본부장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대표 등 보수단체는 유네스코 본부에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추진단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진성 팀장과 여러 차례 대책을 논의했고, 등재를 반대하는 단체를 만나 설득하고 의견을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 본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전진성 팀장 전결로 유네스코 본부에 의견을 보내기로 했다. 직접 압박을 받는 사무총장 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보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전진성 팀장은 ‘5·18은 이미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고, 3개의 관련 법률이 제정돼 있다’는 내용의 간결한 서신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전진성 팀장이 보낸 서신 내용은 간결했지만, '3개의 법률 제정과 희생자들의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2011년 2월,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가 홍콩에 본부를 둔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회에 참석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서 태국을 방문해서 아바콘 교수 등을 만나 5·18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한국 내에 반대 의견이 있지만 당시 가해자였던 육군본부도 동의하고 주한미대사관도 등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한국에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모두 정리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2011년 5월 11일 MBC 라디오의 '손석희입니다'라는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서석구가 출연하여 5·18에 관한 근거 없는 왜곡된 발언을 했다. 「전남일보」가 이를 1면 톱기사로 크게 보도했는데, 보수 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그것은 '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서해로 침투해 광주로 진입했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뒤 북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었다. 서석구는 변호사로 5·18을 끊임없이 폄훼한 지만원과 더불어 보수 세력의 대표 인사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국제자문위원회 멤버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4월 6일 국회 임시회에서 김영진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5·18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질의했다. 김황식 총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정의, 인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훈령을 내려 정부의 입장을 유네스코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훈령을 유네스코 대표부에 내리고 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유네스코 본부에 전달하게 된 것이다.

나. 유네스코 등재 결정과 발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 심사를 위한 제10차 국제자문위원회(IAC) 총회가 5월 23~26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다는 통보가 왔다. 김영진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복직한 안종철 박사는 휴가를 내고 5월 22일 맨체스터 현지로 개별적으로 출국했다.

맨체스터대학에 마련된 국제회의장에는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 파견된 김귀배 부장과 한국에서 온 전진성 팀장이 있었고, IAC위원인 서경호 서울대 교수도 대면할 수 있었다. 오전 회의는 공개로 진행됐는데, 혹시 있을지 모를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비해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내 정리해두고 회의를 지켜봤다. 회의장에는 『일성록』(日省錄) 등재를 지켜보기 위해 문화재청 담당자들도 참석했는데, 그들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5·18기록물은 예측불허였다. 5·18기록물 심사를 앞두고 오전 회의가 끝났다.

오후 회의부터는 비공개였다. 밖에서 기다리는 안종철 박사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

심정이었다. 줄담배를 피워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오후 5시경 휴식시간에(break time) 서경호 교수와 아바콘 교수 등이 잠시 밖으로 나왔다. 안종철 박사는 5·18기록물의 등재상황을 물었다. 그들은 아무런 말 없이 웃음만 지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중간에 진행상황을 발설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들도 외국 심사위원들을 탐문한 결과 '5·18기록물과 『일성록』 모두 심사에 통과된 듯하다'는 언질을 주었다. 단, 본국에는 절대 알려선 안 된다는, 이른바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 유네스코 본부의 사무총장이 최종 확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당부했다.

5월 23일 저녁 김영진 추진위원장이 도착하자 24일 아침 김영진 위원장과 안종철 박사는 맨체스터 대학으로 이동했다. 일정에 따라 대다수 심사위원들은 투어를 떠났고, 회의장에는 몇몇 심사위원들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문화재청 관계자들만 있었다.

로슬린 러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장이 5월 25일 오전 11시에 5·18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권고를 공식 발표했다. 5·18주간에 최종 심사논의와 결재가 이뤄진 것은 '광주'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안종철 박사는 로슬린 러셀 위원장, 루자야 아바콘 위원, 조이 스프링거 담당관에게 축하인사를 부탁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담았다. 동영상 촬영은 『직지심체요절』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 제정한 '유네스코 직지상' 심사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온 충청북도 청주시청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곧바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등재 결정을 최종 발표했다. 사무총장의 등재 결정 서명도 전격적이었다. 국제자문위원회 권고이후 사무총장의 서명까지는 통상 1~2일이 걸렸다. 광주지역 공중파 TV채널 등 지역 언론매체들이 동행했다면 보다 생생하고 좋은 기록을 남겼을 것인데 아쉬움이 큰 상황이었다.

한편, 국제자문위원회 총회가 열리는 맨체스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라는 명문 프로 축구팀이 있었다. 이 팀에 한국의 박지성 선수가 활약하고 있었다. 안종철 박사는 5·18기록물이 등재될 경우, 박지성 선수의 축하 멘트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박지성 선수와 연결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그냥 출국해야 했다. 박지성 선수의 축하 멘트가 있었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이 5월 25일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발표하자, 광주·전남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했다. 언론은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세계기록유산 5·18기록물, 무슨 내용 담고 있나" 등 등재 결정을 알리는 기사에서부터 "5·18항쟁, 민주화운동의 전형으로 공인받다", "5·18정신 인정 전 세계에 인권 메시지", "세계가 5·18기록물 가치 인정",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와 과제" 등 각종 인터뷰 및 기획 기사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6. 5·18기록물의 종류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5월의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될 기록물은 민주와 인권, 평화 메시지를 담고 있는 '5월 정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5·18 기록물은 지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펼쳐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활동과 그 이후 진행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및 관련 문건, 사진이나 영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 정부가 생산한 5·18 민주화운동 자료

지난 1980년 5월 18일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만든 문서들이다. 정부는 계엄령과 함께 업무 협조 지시, 비상계엄 및 소요 사태와 관련된 공문서를 작성해 지방정부에 하달했다. 지방정부도 5·18사태 일지, 피해 상황, 수습 대책, 복구 기준, 시체 매장계획, 사망자 인적사항 조사보고, 매장자 명단 등이 담긴 자료를 만들었다. 경찰은 지난 1980년 포고령 위반 처리 지침 및 지시, 포고령 위반 무혐의 처리 수사기록, 포고령 위반사범 접수 및 조사 현황 등을 작성했다.

나. 군사법기관 재판·DJ 내란음모사건

1980년 5월 한국은 비상계엄령 상태로, 5·18과 관련된 인사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은 뒤 군사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된 군 검찰부 수사기록, 불기소 처분 수사 기록, 기소증지자 기록, 군사 재판 자료 등이 보관돼 있다. 특히 신군부는 1980년 5월 21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한 뒤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압력에 밀려 1982년 석방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2004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선언문

5·18 당시 학생과 시민들은 절박한 상황을 다른 지역에 알리기 위해 투사회보 등을 제작, 배포했다. 이 문서는 신군부의 불법성과 야만성을 폭로한 문서들이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박하게 만들어져 보존 상태는 좋지 않다. 성명서와 선언문, 호소문, 투사회보 등 5·18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라. 사진과 필름 자료

대부분의 사진은 신문사 사진기자들에 의해 촬영됐다. 특히 5·18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처참한 시신을 찍은 사진들은 전국의 시민들이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전남매일 사진기자였던 나경택 기자는 전두환

대통령 재직 때인 1987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진전에 그동안 비밀리에 간직했던 흑백필름을 공개했다.

마.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시민들은 일지 형식과 일기장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고, 신문기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현장에서 기자수첩에 남겼다. 또 5·18을 겪은 뒤 생존해 있는 인사들의 체험을 문자와 음성, 영상으로 채록한 일부 증언기록들이 남아있다. 현재 이들의 증언은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계엄군과 경찰 가혹행위, 고문 등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입은 시민과 학생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물로 진료기록부, 병상기록부 등이다. 부상자들은 전남대학병원과 조선대학병원, 기독교병원, 적십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국군통합병원에서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 최근 병원 진료기록과 치료일지 등이 광주시에 기증돼 현재 광주시청 자료실에 보관돼 있다.

사. 국회 5·18 진상규명 회의록

1988년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국회 청문회 자료들은 국회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또 청문회 전 과정을 담은 방송 테이프 원본은 방송국에 보관돼 있고 녹화 필름은 광주시청 5·18자료실에 있다.

아. 국가 피해자 보상 자료

1990년 국회가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 보상법'을 제정한 뒤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들어갔다.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등 5천100여명의 피해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 보상 심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총 69만5천쪽이 넘는다. 현재 광주시청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자. 미국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간 전신 자료와 국방부와 CIA에서 생산한 문서가 있다.

종합 토론

사회: **염민호 교수**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 토론자: **안희수**

(체육교육과 26학번, 1학년)

○ 토론자: **서종호**

(윤리교육과 25학번, 2학년)

○ 토론자: **안은성**

(화학교육과 23학번, 2학년)

○ 토론자: **김민욱**

(교육학과 21학번, 교육행정 전공 석사과정)



오월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안희수(체육교육과 26학번)

고등학생 시절 저는 작게나마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5.18, 오월의 이야기’를 알리는 역할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늘 배우고 듣는 입장이었던 제가 직접 알리고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5·18의 전반적인 역사를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오래 남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직접 참여했던 민주평화대행진은 저에게 오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광주를 함께 걸으며 사람들과 나누었던 연대와 공감은 평화와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이번 세미나 토론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적 실천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예비교사인 제가 이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태도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 과거 사범대학 구성원들의 실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안종철 박사님의 발표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5·18 민주화운동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기록되고 기억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5·18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며 진실은 저절로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기록하고 증명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역사로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5·18을 주로 ‘기억해야 할 역사’로만 생각했는데, 이번 발표문을 통해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역사’라는 점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발표문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5·18 민주화운동은 끝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하는 살아 있는 역사라는 점입니다. 둘째, 전남대 사범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단지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문제 앞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학생들은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그 과정에서 투옥과 제적, 고문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셋째,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연

결되어 있으며 성찰과 실천 역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지금의 예비교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류영룡 박사님의 발표문을 읽으며 특히 공감했던 부분은 ‘성찰과 실천, 교육 내재와 외재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 역시 학교 안에서 배우는 지식만으로는 교육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느껴 왔는데 발표문은 그 생각을 더 분명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시절 학생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행동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대를 살아간 청년들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몇 가지 질문도 생겼습니다. 오늘날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사회적 실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과거 학생들의 실천이 거리에서의 외침과 직접적인 저항이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18을 수업 시간에 배우고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기억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만약 행사가 끝나면 잊히고 시험이 끝나면 지나가는 내용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란 단지 마음속에 간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태도를 바꾸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학생이자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5·18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교육과 연결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건의 날짜나 결과만 가르치는 것보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선택, 연대, 희생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5·18을 단순 암기 내용이 아니라 토론과 질문의 주제로 다루고 학생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 문제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학에 들어와 5·18의 역사를 더 깊이 접하면서 고등학생 때 막연하게 느꼈던 것이 이제는 한층 더 분명해졌습니다. 과거의 저는 행사 기획자로서 5·18을 마주했다면 지금의 저는 예비교사로서 같은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각이 달라진 만큼 앞으로 제가 교실에서 이 역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책임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5·18을 하나의 과거 사건으로만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가치가 오늘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계속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월을 기획했던 고등학생이 이제 교사를 준비하는 대학생이 되어 같은 질문을 다시 붙들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에게 그 질문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준 자리였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걷는 길

서종호(윤리교육과 25학번)

제가 이번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데에는 작년에 수강했던 ‘5·18 항쟁과 민주·인권’ 수업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 텍스트와 영상으로 마주한 오월 광주의 기록들은 저에게 지나간 역사가 아닌, 예비교사인 제가 깊이 간직해야 할 삶의 지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문을 읽으며,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직접 행동했던 선배님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문 내용 중 가장 깊이 와 닿았던 점은 “교육의 대상인 인간의 존엄은 교육 실천에 있어 최고의 가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자적 양심이란 결국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희생과 용기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사범대 교수님들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위 선두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구금과 면직의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학생들 또한 졸업 후 ‘성행 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 임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예견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마주하며 교육자적 양심이란 단순히 교실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그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믿는 신념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야말로, 예비교사인 제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실천은 강의실 안의 공부를 넘어 사회로 확장되었습니다. 교육과 사회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당시 선배님들은 노동 현장이나 농촌 활동에 참여하며 우리 사회의 모순을 직접 마주하고 민중과 연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인 사회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결국 예비교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교육이 사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스승과 제자가 함께했기에 더욱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5·18 당시 교수님들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시위의 선두에 서서 금남로를 함께 걸으셨고, 학생들은 그런 스승의 뒤를 이어 5월의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사범대 구성원들이 서로를 아끼며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웠던 역사는, 오늘날 저에게 진정한 교육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을 마주하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록들을 끄집어내어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슬픈 역사를 되새기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시민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찾았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사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금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18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그 기억이 우리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기억이란 과거를 추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적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기억하는 자에게는 그 기억을 내일의 역사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비교사인 저의 숙제는 단순히 교과서 속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아는 당당한 주체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사가 먼저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학생들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으로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학생인 지금의 저는 '제대로 알고 공감하는 법'부터 연습하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문을 통해 마주한 역사는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었고 꺾이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나열을 암기하는 공부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당시의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강의실 밖에서 사회의 아픔을 마주했던 것처럼, 저 또한 주변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세상의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야말로 예비교사인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는 '기억'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제가 교단에 서게 된다면, 저는 '학생들이 자기 생각의 주인이 되도록 돕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답을 강요하기보다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삶으로 정의로운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교사가 먼저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아이들도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 예비교사 여러분과 이 질문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역사로 배울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기억을 전해주는 증언자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태도를 보일 때, 아이들도 자신과 타인을 책임질 줄 아는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기억'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태도를 바꾸고 미래의 교실을 준비하게 만드는 힘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들을 잘 이어받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나의 교육관 : 기억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안은성(화학교육과 23학번)

나는 전라남도 영암에서 나고 자라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내게는 흥터 같은 기억이 하나 있다. 그 기억은 군 복무 시절, 경상도 출신 선임으로부터 “광주는 빨갱이 소굴 아니냐?”라는 가시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생겨났다. 당시 나는 웃어넘기는 것 외에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유는 계급이 낮았고, 광주가 빨갱이의 소굴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뿐더러, 그 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불쾌감은 아직까지 가슴 한쪽에 깊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전두환 및 12·12사태의 주도 세력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했던 운동을 분명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된 ‘비상교육’의 한국사 2 교과서 105페이지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필리핀, 타이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적혀있다. 2년 전 기억을 되짚어보면, 가시 같은 말을 들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교사를 꿈꾸고 있는 예비 교사로서 같은 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역사를 왜곡해 인식하고 있는 선임과 그때의 상황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진실을 가르치는데 어째서 왜곡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 의문은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이며, 이번 세미나가 이 의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세미나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교육학과 학과장 이지혜 교수님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육학과 염민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류영룡 박사님의 발표문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내용 측면에서 1980년대 사범대학 학생들이 주축이 된 학생운동을 인물 중심으로 조명했다는 점이다. 교육학과 78학번 위경종님 등 18명의 항쟁 과정을 자세한 상황과 사건으로 서술하여 당시 민주화운동이 실제로 어떠한지 전달하였다. 이 덕분에 “교육은 과정이고 실천이다”(p. 25)라는 문구가 예비 교사인 내게 깊은 성찰의 기회로 작용했다. 이유는 박사님의 발표문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보존하고 가르쳐야 할 가치 있는 역사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안종철 박사님의 발표문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난관 속에서도 등재를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와 노력은 오늘날 우리가 예비 교사로 서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계승해야 하는지 역설하고 있었다. 안 박사님의 발표 문 덕분에 교과서의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민주화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비상교육 한국사 2, p. 105)라는 문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묻어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박사님의 발표문이 나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역사 왜곡이 왜 지속될까? 1980년 당시 광주가 고립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던 것이 아직 역사 왜곡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2011년 MBC 라디오의 ‘손석희입니다’라는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서 서석구가 왜곡된 발언을 했던 것 등 과거의 보도 행태나 특정 인물의 거짓 발언이 SNS를 통해 어떻게 증폭되고 수용되는지, 그 메커니즘도 짚어보고 싶다. 둘째, 현재 젊은 세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교육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사실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역사 왜곡이 발생하는 점이 의문이다. 교과서의 지식만으로는 왜곡된 정보를 방어할 수 없는 것일까, 또는 잘못된 사실을 머릿속에 굳힌 사람에게서 은연중에 왜곡된 역사를 학습한 것일까.

세미나에서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2가지로 첫째는 이것이 지역갈등과 세대 갈등의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육에 빈틈이 있는지를 성찰하기 위함이다. 그 근거는 2가지이다. 첫째는 2년 전 선임과 나 사이에서 지역갈등이 발생했던 나의 경험이고, 둘째는 1980년대, 잘못된 언론보도로 왜곡된 역사를 머릿속에 굳힌 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과 그 악순환의 우려이다. 나는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토론자들과 류 박사님, 안 박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다.

5·18민주화운동을 사회적 실천으로 잇기 위하여 사범대학 학생인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교사가 되어 다음 두 가지를 실천하겠음을 약속하겠다.

첫째,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을 하겠다. 이유는 내가 경험했던 역사 왜곡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전공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덕분에 데이터가 타당한지,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밝히는 능력이 향상됨을 느낀다. 과학 교육이 그러하듯, 역사적 사실을 접했을 때, 그 데이터(출처, 근거, 논리)가 타당한지 검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역사 왜곡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 방법으로 논증을 갖춘 글쓰기와 토론을 사용하겠다. 글쓰기와 토론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을 양성하겠다.

둘째, 교내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유는 학생 자치 활동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학교라는 작은 사회가 청렴하게 유지되고 변화되는 과정

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당시 학생회장을 맡았던 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했던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의방식의 고민부터 시작해 학생자치법정의 활성화, 지역 학생회의 교류회를 통한 교육정책의 제언 등이 있다.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민주시민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해결 방법이 혐오나 왜곡이 아닌 이해와 소통임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세미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평소 고민이었던 교육관 정립에 도움을 주었다. 외부의 압력과 현실적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을 교육기준을 세우는 것은 나의 오랜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세미나 준비를 통하여 여러 방면에서 좋은 교육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관 정립을 위한 방향을 찾은 것 같다.

오월 정신이 묻고 오늘의 사범대학 학생이 답한다

김민욱(교육학과 21학번, 교육행정 전공 석사과정)

나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구성원으로서, 사범대학이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사회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을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교육학과 염민호 교수님의 추천으로 제1회 사림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나는 광주트라우마센터 자원활동가 활동 경험(2019년)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아픔을 가까이에서 접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업 과제와 연구에 몰두하며, 그 의미를 일상에서 충분히 성찰하지 못했던 것 같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치·역사적 의미를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다. 소중한 학습기회를 마련해주신 안종철 박사님과 류영룡 박사님,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사범대학 및 교육학과 지도부, 5·18 연구소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나는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루게되는 일들이 있다. 이번 토론문 준비도 그중 하나였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조심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조심스러움은 단순히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나의 현실과 미래 준비를 앞세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러면서 1980년대의 당시 사범대학 학생들도 분명 현실이 두렵고 잃을 것이 많았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나는 이번 세미나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두 발표문은 다른 방식으로 답에 접근했다. 먼저, 류영룡 박사님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참여 역사를 사건, 인물 중심으로 정리하고, 교육적 의미를 제시했다. 발표문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많은 사범대학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에 참여해왔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사범대학 학생들의 투쟁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기록”(p.3)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역사/학문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안종철 박사님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안 박사님의 글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배경 지식이 많지 않은 독자라도 몰입하여 읽을 수 있을 만큼 생생하고 쉽게 서술되어 있었다. 특히 ‘나. 유네스코 등재 결정과 발표’(pp.13-14) 부분은 읽는 내내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 이 발표문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저절로 세계에 알려진 것

이 아님을 보여준다. 수백 명의 증언 채록과 63권에 달하는 자료총서, 수년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끝까지 추진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발표문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된다. 류 박사님의 발표가 ‘맞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 라면, 안 박사님의 발표는 ‘싸움을 기록하고 세계에 알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는 싸우는 사람과 기록하는 사람이 함께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문을 읽으며 정리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류 박사님께 질문드린다. 첫째, 당시 사범대학 학생들이 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열정과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1980~1990년대 사범대학 학생들은 신군부의 감시와 고문, 복역 위험뿐 아니라, 교사 임용 기회까지 감수하며 학생운동에 헌신했다. 그것은 시대의 사명감이었을까, 혹은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연대감이었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그러한 동력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5·18 정신과 업적 계승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낮았고, 사범대 졸업 후 교직 진출이 현재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범대학 학생들은 높은 임용시험 경쟁률과 불안정한 진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나 역시 당장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우선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오늘날 사범대학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참여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류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다음으로, 안 박사님께 질문드린다. 첫째,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와 민관협의회가 등재 불확실성과 실패 부담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하지 않으려 하면 수많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 박사님께서 끝까지 등재를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다. 둘째, 기록이 보존되는 것과 기록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읽히고 활용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방대한 자료총서와 아카이브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접근하고 있을까. 앞으로 5·18 기록물의 확산/활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오늘날 5·18 정신의 실천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성찰과 작은 실천이 확산되고, 교사가 되어 교실 속에서 민주주의/인권/평화 가치를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 역시 중요한 실천일 것이다. 또한 이번 사림세미나와 같이 사범대학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사범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1980년대 사범대학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아리, 학생회, 교수-학생 연대 등 아래로부터의 기반이 있었다. 오늘날 교육조직으로서 사범대학은 구성원들이 5·18 정신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내 문화와 장(場)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까?

나는 오늘날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도 여전히 사회참여와 실천 역량이 깊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임용이라는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지만, 사회문제 앞에서 언제든 각자의 방식으로 나서는 마음 역시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범대학 학생들의 역량을 믿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각자의 방식으로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사범대학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